

# 새자료 정학유의 흑산도 기행문 『부해기(浮海記)』와 기행시

정민\*

## 목차

1. 머리말
  2. 정학유와 『운포유고』에 대하여
  3. 『부해기』의 창작 배경과 노정 소개
  4. 『부해기』의 주요 내용
  5. 『운포유고』 속의 흑산도 기행시와 이학규의 화답시
  6. 맺음말
- [부록] 『부해기』와 흑산도 기행시 원문 및 번역

## 국문초록

이 논문은 1809년 정학유의 흑산도 기행문 『부해기』와 기행시를 소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부해기』는 정약용의 둘째 아들 정학유(丁學游, 1786-1855)가 24세 때인 1809년 2월 3일에 강진을 출발해서 흑산도에 갔다가, 3월 24일에 강진으로 돌아오기까지 50여 일 간의 여정을 기록한 기행 일기다. 정학유의 문집이 공개되지 않아 그간 학계에서 이 자료의 존재를 몰랐다. 이 글에서 최초로 소개하고 전문을 공개한다.

정학유는 부친인 정약용의 당부로, 당시 흑산도에 유배와 있던 둘째 큰아버지 정약전을 문안하기 위해 이곳을 찾았다. 당시 열악한 뱃길에 고생 끝에 흑산도에 가는 도중 난생 처음 고래를 보았고, 뱃사람들의 풍속과 주변의 경관도 상세하게 묘사하였다.

이 자료를 통해 우리는 흑산도에 관한 중요한 옛 기록을 추가할 수 있게 되었다. 『부해기』에는 흑산도의 풍물과 오가는 뱃길에 대해 상세히 소개하고 있을 뿐 아니라, 흑산도의 인문지리적 환경과 당시 섬주민의 생활상, 특산과 지명 및 경관 소개 등이 풍부하다. 무엇보다 정약전의 유배 생활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들이 담겨있다.

이와 함께 정학유는 흑산도의 풍물을 12수의 한시로 남겼다. 또 이학규는 정학유의

\* 한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 E-mail : jung0739@hanmail.net

글을 보고, 역시 한시 12수를 지어서 관련 내용을 한층 풍성하게 해주었다. 끝에는 전문을 번역하고 원문과 함께 수록하여 향후의 연구 자료로 제시하였다.

주제어: 「부해기(浮海記)」, 정학유(丁學游), 정약전(丁若銓), 『운포유고(耘圃遺稿)」, 정약용

## 1. 머리말

이 글은 새 자료 「부해기(浮海記)」를 소개하고, 전문을 번역해서 학계에 알리는 데 목적을 둔다. 「부해기」는 다산 정약용의 둘째 아들 정학유(丁學游, 1786-1855)가 24세 때인 1809년 2월 3일에 강진을 출발해서 3월 24일에 강진으로 돌아오기까지 50여일 간의 여정을 기록한 기행 일기다. 정학유는 부친의 당부로 중부(仲父) 정약전(丁若銓, 1758-1816)을 뵈러 이 험한 길을 다녀왔고, 그 과정을 기록으로 남겼다. 이 글은 정학유의 문집 『운포유고(耘圃遺稿)』 중 문집 권2에 수록되어 있다. 그간 『운포유고』가 공개되지 않아, 이 자료의 존재 또한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다.<sup>1)</sup> 정학유 또한 「농가월령가」를 지은 이로 밝혀진 외에 그의 문학 세계가 전혀 드러난 바 없는데, 금번에 김영호 선생이 소장해온 3책 분량의 문집이 공개됨으로써 「부해기」와 함께 그의 작품 세계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가능해졌다.

1) 이 자료는 다산 집안 가장본 『유고(遺稿)』 10책 중 제9책에 수록되어 있다. 이 10책은 정수강(丁壽崗, 1454-1527)의 『월헌집(月軒集)』(1, 2책)과 다산의 부친 정재원(丁載遠, 1730-1792)의 『하석유고(荷石遺稿)』(5, 6책), 정학유의 『운포유고』(7, 8, 9책) 외에 분량이 적은 집안의 역대 문집 여럿을 모은 책이다. 가장본 『유고』의 현 소장지는 김영호 선생이다. 이 자료는 2016년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김영호 선생의 주도로 진행된 「세계사 속의 다산학」 연구 프로젝트 진행 당시, 공동연구 참여자 전원에게 함께 제공된 것에 따른다. 귀한 자료를 제공해주신 김영호 선생과 한국학중앙연구원에 감사드린다.

1801년 황사영 백서 사건에 연루되어 강진과 흑산도에 유배된 다산 정약용과 손암 정약전 형제는 서신을 통해 형제간의 우애와 학문적 토론을 이어갔고, 다산 17통, 손암 14통의 왕복 편지가 남아 전한다.<sup>2)</sup> 막상 정약전의 흑산도 생활이나 생활 공간에 관한 기록은 온전히 남은 것이 거의 없었는데, 금번 「부해기」의 소개를 통해 보다 입체적인 정보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이 글에서는 저자인 정학유의 『운포유고』를 간략히 소개하고, 「부해기」 창작 경위와 노정 및 주요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겠다. 이와 함께 가까운 집안으로 신유사옥 당시 다산과 동시에 김해로 유배 간 이학규(李學逵, 1770-1835)가 자신의 『낙하생집(洛下生集)』 7책 「인수옥집(因樹屋集)」 중에 남긴 「정학포의 현산기행시에 화답하여(和丁學圃茲山紀行詩)」 12수도 함께 살펴 보겠다. 이와 함께 부록으로 「부해기」 전문과 흑산도 기행 당시에 지은 기행시를 번역과 함께 제시하여 자료로 공유코자 한다.

## 2. 정학유와 『운포유고』에 대하여

정학유는 자가 치구(釋求), 호는 운포(芸圃)이다. 아명은 문장(文牂), 초명은 학포(學圃)이다. 그의 생애는 형 정학연(丁學淵, 1783-1852)의 그늘에 묻혀 알려진 것이 많지 않다. 15세 때인 1801년에 아버지 다산이 강진으로 귀양을 가자 길을 잃고 방황했다. 유배 초기 강진에서 보낸 다산의 편지에는 둘째 학포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자주 눈에 띈다.

그는 학문보다는 문예에 더 취미가 있었다. 23세 때인 1808년 4월 20일에

2) 다산과 손암 사이에 오간 왕복서간은 전문이 장서각 25책본 『여유당집(與猶堂集)』 제6책, 『열수전서(洌水全書)』 속집(續集) 4에 수록되어 있다.

8년만에 처음으로 아버지를 뵈러 강진에 내려왔고, 이후 1810년 2월까지 근 2년 가까이 다산초당에 머물며 아버지 다산을 모시고 공부했다.<sup>3)</sup> 정학유는 이듬해인 1809년 2월 9일에 중부 정약전을 뵈기 위해 흑산도를 다녀왔다.

상경한 뒤로도 아버지 다산의 해배가 늦어지고, 해배 후에도 복권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특별히 두드러지지 않은 조용한 삶을 살았다. 그의 친필 편지 등이 다산의 제자 집안이나 다산 문하에 드나들었던 대문사 승려들의 문적 속에서 간혹 보이지만, 그 분량 또한 많지 않아 그의 인간과 문학에 대한 접근은 사실상 어려웠다. 금번 『운포유고』의 존재가 밝혀짐에 따라 향후 그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

먼저 『부해기』가 수록된 『운포유고』의 내용을 연대순으로 구분해서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운포시집 권1 : 1795년(10세)-1801년 : 47제 58수

운포시집 권2 : 1802년(17세)-1807년 : 28제 46수

운포시집 권3 : 1808년(23세)-1811년 : 49제 66수

운포시집 권4 : 1812년(27세)-1816년 : 41제 60수

운포시집 권5 : 1816년(31세)-1828년 : 69제 90수

운포시집 권6 : 1829년(44세)-1839년 : 66제 100수 1

운포시집 권7 : 1840년(55세)-1845년 : 74제 122수

운포시집 권8 : 1845년(60세)-1849년 : 34제 46수

운포문집 권1 : 부(賦) 6수

운포문집 권2 : 문(文) 「온천고(溫泉考)」, 「부해기(浮海記)」, 「탄보묘기(誕報廟記)」, 「적벽부해(赤壁賦解)」, 「우초관기(雨蕉館記)」, 「격사해(擊蛇解)」, 「발정무본난정첩(跋定武本蘭亭帖)」, 「송송

3) 『다산시문집』 권5에 「四月二十日學圃至, 相別已八周矣」라 한 작품이 실려 있고, 『사암연보』에 “경오년 봄, 내가 다산에 있을 때 아들이 돌아가겠다고 고하였다.(庚午春, 余在茶山, 子告歸.)”라 한 내용이 나온다.

처사유한리산서(送宋處士游漢孛山序), 「백운관분지기(白雲觀盆池記)」, 「석시원위첩발(釋詩原委帖跋)」, 「현등기행(懸燈紀行)」, 「답김금미서(答金琴粟書)」, 12편.

시집 8권은 모두 연대순으로 편차되었고, 작품 수는 총 408제 599수이다. 여기에 부(賦) 6수와 문(文) 12편이 수록되었다. 「부해기」는 문집 권2에 실려 있다. 특별히 연대순으로 편집된 시집은 권 3에 1808년 4월에 아버지를 뵈러 강진에 왔다가 1810년 2월 초까지 2년 가깝게 머물 당시, 다산 초당과 다산의 생활 동선(動線)을 엿볼 수 있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다산학 연구의 주변 자료로도 가치가 크다.

흑산도 기행 당시 지은 시 6제 12수는 「부해기」 함께 흑산도의 인문 지리를 이해하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1810년에 지은 「채호사장(采蒿四章)」은 부친 다산의 「채호」 시를 받아서 쓴 작품이다. 시 「독역례사전(讀易禮四箋)」은 다산의 『역례사전』을 정리하면서 느낀 감회를 적은 장시다. 중간에 실린 「제부벽루낙화도(題浮碧樓落火圖)」와 「제어구세마도(題御溝洗馬圖)」는 과시(科詩)의 습작이며, 서울로 올라와 다산초당에서 함께 생활했던 벗들에게 보낸 장시 「기다산제우(寄茶山諸友)」에는 윤종기, 윤종익, 윤종삼 외에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윤사가(尹司稼), 윤종청(尹鍾靑) 같은 제자들의 이름도 호명되고 있어 흥미롭다. 또 「유수정사(遊水精寺)」는 “금마선사 이곳에 멀리서 와 노니니, 해묵은 단룡동(丹龍洞)에 나는 누각 있다네.(金馬禪師此遠遊, 丹龍舊洞有飛樓.)”라 하여, 현재 위치를 알 수 없는 수정사의 위치와 내력을 찾는 데 도움을 준다.

이밖에 1816년 작 「초의상인지(艸衣上人至)」와 「하야여초의화(夏夜與艸衣話)」, 「차석옥화상운(次石屋和尚韻)」, 「류초의선사(留艸衣禪師)」, 1830년의 「기초의선사(寄艸衣禪師)」 4수, 1849년의 「초의선사종죽가(艸衣禪師種竹歌)」 외 여러 작품은 다산의 제자인 초의선사와의 대를 이은 교류를

보여주는 귀한 자료다. 12수 연작의 「우화구십이장(又話舊十二章)」은 평생을 돌아보는 감회가 남다르고, 1844년에 쓴 「송굴동윤기숙근계환향(送橋洞尹旗叔昆季還鄉)」 3수와 「호의노사이두륜산자채신차견증(縞衣老師以頭輪山自採新茶見贈)」 등 다산으로부터 이어온 차생활의 자취를 보여주는 작품 또한 적지 않다.

문집 권1의 부(賦)는 「선부(蟬賦)」, 「석가산부(石假山賦)」, 「민한부(憫旱賦)」, 「청해부(淸海賦)」, 「자미화부(紫微花賦)」, 「신루부(蜃樓賦)」 등 6편을 수록했는데, 모두 강진 체류 시절에 지은 과부(科賦)의 습작들로 보인다.

문집 권 2에는 각종 산문 12편을 수록했다. 「온천고」는 국중 온천 33개소를 체계적으로 소개한 최초의 저술이다. 온양온천, 덕산온천을 비롯하여 공주온천(유성온천), 동래온천 외에 북한지역 온천을 소개하고, 이와는 별도로 청주의 초정약수와 문의초천(文義椒泉), 청송초수(靑松椒水), 영천초정(榮川椒井), 함열약정(咸悅藥井), 오색령오색천 등 국내의 이름난 약수도 소개하였다. 뒤쪽에 중국온천 중 특별히 유명한 12개소 온천을 소개하고 있어 흥미롭다.

「탄보묘기(誕報廟記)」는 임난 당시 중국 장수 진린(陳璘)이 고금도에 세운 관왕묘 중수에 대한 사연을 담았고, 「우초관기(雨蕉館記)」는 다산초당의 제자 중 한 사람인 성교(聖郊) 윤자동(尹玆東, 1791-?)의 집을 위해 써준 기문이다. 「석시원위첩발(釋詩原委帖跋)」은 백련사 승려 한영(翰英)을 위해 육조 이래 고승들의 시를 모아 직접 써준 책자의 발문이다. 「현등기행(懸燈紀行)」은 1840년 현등산을 유람한 기행 일정을 담았고, 「답김금미서(答金琴藥書)」는 1846년 추사 김정희의 아우 김상희(金相喜)에게 보낸 답장이다.

정학유의 『운포유고』는 이렇듯 다산의 생애와 다산 집안의 상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만한 풍부한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이 글에

서 소개하려는 「부해기」와 흑산도 기행시는 가장 눈길을 끄는 자료다.

### 3. 「부해기」의 창작 배경과 노정 소개

「부해기」에 대해 알아보자. 1808년 4월에 근친(覲親)을 위해 강진으로 내려온 정학유는 다산초당으로 막 거처를 옮긴 아버지 밑에서 강학과 함께 부친의 저술 작업을 도우며 해를 넘겨 머물렀다.

그 한 해 전인 1807년 7월, 정약전의 아들 정학초(丁學樵, 1791-1807)가 17세의 아까운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당시 정학초는 정학유와 함께 아버지와 작은 아버지 정약용을 뵈러 가기 위해 남행을 준비하다가 홀연 병을 얻어 죽었다. 아들의 남행을 설레며 기다리던 정약전에게 1807년 7월 19일에 아들의 부음이 닿았다. 정약전은 아들 넷을 두었는데, 중간에 모두 잃고 남은 것은 이 아들 하나 뿐이었다. 그는 어려서부터 놀라운 천재성을 보여 집안의 기대를 한 몸에 모으고 있던 터였다.

정학초가 세상을 뜨기 전 다산이 정약전에게 흑산도로 보낸 편지인 「답중씨」에서 “금년 봄에 물어온 한두 조목의 내용을 보니 경악할만했습니다. 제 생각에 올가을 이곳에 오게 해 가르치면서 겨울을 나고, 내년 봄에 흑산도로 뵈러 가서 4,5개월 간 모시다가 돌아간다면, 반드시 그 애를 개발시켜 길을 얻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학유도 거취를 함께 하고 싶은데 어찌실런지요?(今春見其條問一二條, 可驚可愕. 吾意今秋率來此處, 教之過冬, 明春入覲, 待四五月間回去, 在渠必能開發得路. 文兒欲使之同去就, 未知如何?)”<sup>4)</sup>라고 썼다. 1807년 여름에 보낸 편지로 보인다. 이때 다산은 정학초와 정학유를 가을에 함께 강진으로 내려오게 해서 겨우내 가르치고, 봄에

4) 정약용, 「답중씨」, 『다산시문집』 권20.

흑산도로 보내 몇 달을 가르친다면 학문의 근기를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편지를 받은 정약전은 『기다산(寄茶山)』 6에서 이렇게 답장했다. “이와 같다면 내가 다시 무엇을 근심하겠는가? 내가 기뻐서 잠이 오질 않네. 올 가을 데려오는 논의는 내가 권하지도 막지도 않으려네. 다만 모자의 뜻대로 하게 한다면 용기를 내더라도 여러 의논들이 많이들 말려 반드시 이루어지지는 못할 걸세. 만약 남쪽으로 온다면 얼마나 기뻐하겠는가?(如此, 吾復何憂? 吾喜而不寐也. 今秋率來之議, 吾不勸沮, 令其惟意母子, 則勇發, 而諸議多沮, 必不成矣. 若果南來, 何喜如之.)”<sup>5)</sup>

이 말에 따라 정학유와 함께 강진으로 내려올 준비를 하던 정학초가 짐을 싸던 중 홀연 병을 얻어 세상을 뜨자 정약전은 절망에 빠졌다. 결국 1808년 4월에 정학유 혼자 강진으로 내려왔고, 해를 넘긴 1809년 봄에 다산은 둘째 아들 정학유에게 정학초를 대신해서 중부가 계신 흑산도로 찾아가 볼 것을 부탁했던 듯하다.

이에 따라 정학유는 1809년 2월 3일 강진을 출발해서, 영암 도씨포에서 배를 타고 정개도(소당섬), 목포보(나팔해)와 고하도, 죽진을 거쳐 팔금도와 비금도를 지나 흑산도로 향하는 긴 여정을 출발했다. 이후 흑산도에서 중부 정약전과 만나 공부를 점검받는 한편으로 흑산도 정상인 너럭바위와 나사동(소라굴) 등 흑산도의 여러 승경을 유람하고, 정약전의 생일잔치까지 치른 뒤 51일 만에 강진으로 돌아왔다. 『부해기』는 이 51일간의 여정을 날짜별로 일기 형식으로 기록한 내용이다.

하지만 다산은 『사암연보』 뿐 아니라 『자찬묘지명』과 『손암묘지명』에서

5) 다산과 손암 사이에 오간 왕복 서간은 장서각 25책본 『여유당집』 제6책, 『열수전서 속집』 4에 수록된 것에 따르고 별도의 출전을 밝히지 않는다. 편지에 적힌 번호는 문집에 수록된 편지에 일련 번호를 매긴 것이다. 다만 수록 편지는 연대순이 아니고 뒤섞여 있다.



조차 정학유의 흑산도 기행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았다. 국가의 죄를 입은 죄수 간에 중간에 자식을 두어 왕래했다는 혐의를 피하려는 의도였던 듯하다. 그간 정학유의 문집이 알려지지 않은 데다 이같은 사정이 겹쳐 그간 「부해기」의 존재 뿐 아니라 정학유가 흑산도를 다녀왔다는 사실조차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

「부해기」에는 흑산도의 풍물과 농사에 관한 묘사, 자주 출몰하던 중국 표류선에 대한 증언, 문순득 이야기, 야생화된 산개(山犬) 이야기, 그리고 인어와 각종 풍물과 산물 및 흑산도의 풍경점에 대한 다채로운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 흑산도의 지역사 연구에 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정약전의 흑산도 유배공간 이해에도 매우 유익한 정보를 준다. 정학유는 이와는 별도로 흑산도의 여정을 묘사한 시 12수를 따로 남겼다.

먼저 「부해기」의 날짜 별 주요 내용을 노정과 함께 소개하겠다.

- 2월 3일 : 초당 출발 - 40리 - 황령점(누리재) - 40리 - 도씨포(영암) - 섬사람 차씨의 중선(中船) 승선 예약 - 포구 나군 집에서 1박
- 2월 4일 : 동틀 무렵 선왕제(船王祭) 후 출발 - 파도로 인해 닻 내림. 배 위에서 뱃사람들 노름 구경하며 2박. 소동파의 시를 읊조림.
- 2월 5일 : 해뜰 무렵 출발 - 5,60리 - 정개도(소당섬) 도착, 닻 내림 - 정개도 학성군 김완 묘소 소개. 3박
- 2월 6일 : 새벽 출발 - 서쪽으로 40리 - 목포보(나팔해) 도착 - 선왕제 올림 - 10리 - 역풍으로 고하도 앞에서 닻 내림 - 고하도 충무공 유적지 비문 읽음 - 저녁에 배로 돌아와 식사 후 촌사 투숙. 4박.
- 2월 7일 : 비와 바람으로 고하도 촌가 유숙 - 주인집 아이 공부 점검 - 술과 고기 내와서 대접받음. 5박.
- 2월 8일 : 새벽 출발 - 10여리 - 죽진(대나래) - 해문(교거해) 나서 40여리 - 지좌도 - 밤에 팔금도 정박, 촌가 유숙. 6박.

- 2월 9일 : 아침 출발 - 큰 바람과 폭우 만나 항구 대피 - 팔금도 촌가 다시 유숙 - 압해도 정정승 묘소 순회. 7박.
- 2월 10일 : 날씨 관계로 팔금도 유숙. 섬사람들 낙지 잡는 것 설명. 8박.
- 2월 11일 : 아침 출발 - 30리 - 비금도 지남 - 20리 - 관청도 도착. 홍의도 태사도 배가 송도 앞바다에서 표류함. 비금도 염전 소식과 관청도 이름 내력 설명. 한밤중에 편풍을 맞아 출발 - 10여리 - 송도 서편 이르자 먼동이 틈. 9박.
- 2월 12일 : 동틀 무렵 송도 앞바다 도착 - 선왕제 올림 - 바람이 약해 노젓기로 운행. 흑산도까지와의 거리 설명. 반나절 서쪽으로 가서 흑산도를 멀리서 봄. 교맥섬 지나 선왕제 올리고 점심 식사 도중 갑자기 고래 다섯 마리와 조우. 물뿜는 광경과 행동 묘사. 서쪽으로 수백리 이동. 소동파 시 읊음 - 영산도 - 5리 - 사미촌 도착 - 중부께 절 올림. 10박.
- 2월 13일 : 중부와 대화. 흑산도와 우이도 설명. 중부의 거주 장소 이동 설명. 1805년 흑산도 보춘에 살다가 사미촌으로 옮김. 서공의 『고려도경』 인용, 흑산도 버투돌을 인제에 건취 설명. 흑산도는 오곡이 나지 않고 이곳의 과일과 새, 짐승 설명. 말을 본 적 없는 아이들과, 산개가 된 개 이야기. 11박.
- 2월 14일 : 기록 없음. 12박.
- 2월 15일 : ‘황시(皇尸)’ 설명 들음. 우이도 문순득 이야기 소개. 제주도 표류선의 여승인 표류민 5명과 문순득이 이들과 만난 이야기 설명. 13박.
- 2월 16일 : 수진본 관화(官話) 1책 얻은 이야기. 1808년 12월 표류선 이야기. 마을 아이가 표류선에서 얻은 책 이야기와 백사장에 버려진 표류민의 유해. 포획한 관리의 수탈로 인한 참상 설명. 14박.
- 2월 17일 : 기록 없음. 15박.
- 2월 18일 : 흑산도 절정의 너럭바위 홍석(鴻石)에 중부와 함께 오름. 제주가 보인다는 이야기. 홍의도와 가가도(가거도), 태사도, 만제도 등 인근 섬에 대한 설명. 16박.
- 2월 19일 : 사미촌 나사동 유람. 『고려도경』 속 기록 설명. 나사동 묘사. 섬

앞쪽 2개 꽃섬과 인어 이야기. 성계에 대한 설명. 17박.

2월 20일 : 기록 없음. 18박.

2월 21일 : 기록 없음. 19박.

2월 22일 : 기록 없음. 20박.

2월 23일 : 기록 없음. 21박.

2월 24일 : 기록 없음. 22박.

2월 25일 : 여러 날 계속 경전 공부함. 23박.

2월 26일 : 기록 없음. 24박.

2월 27일 : 기록 없음. 25박.

2월 28일 : 기록 없음. 26박.

2월 29일 : 기록 없음. 27박.

2월 30일 : 기록 없음. 28박.

3월 1일 : 소사미 냇가 바위에서 정약전 생일 잔치. 무너진 절터 설명. 보춘  
소교 이행목 설명. 조암 구경. 보춘 유숙. 29박.

3월 2일 : 사촌으로 돌아옴. 30박.

3월 3일 - 3월 13일 : 기록 없음.

3월 14일 : 득병하여 닷새 만에 나옴. 인삼 한 뿌리 먹음. 42박.

3월 15일 - 3월 20일 : 기록 없음.

3월 20일 : 중부와 심촌에서 숙박. 도씨포로 가는 배와 만남. 48박.

3월 21일 : 동틀 무렵 중부와 울며 작별함. 정오에 편풍 언어 출발. 물결에  
대한 설명 중 관련 시문 소개. - 관청도 정박하여 마을에서 유숙. 49박.

3월 22일 : 첫닭 울 때 출발 - 교거해 도착 - 용섬(독섬) - 목포보 정박. 50박.

3월 23일 : 정오에 닷 풀어 저물녘 도씨포 정박. 나씨 집 숙박. 51박.

3월 24일 : 정오에 황령점에서 쉬고, 저녁에 다산 도착.

장장 51박 52일간의 긴 여정이었다. 도중에 일기를 남기지 않은 날이 꽤  
있다. 2월 14, 17일과 20일에서 24일, 26일에서 30일, 그리고 3월 3일에서  
13일, 15일에서 20일까지 기록이 빠지고 없다. 전체 52일 중 30일은 일기

를 쓰지 않았고, 기록된 것은 22일뿐이다. 연속해서 여러 날 기록을 남기지 않은 기간 중에는 중부 정약전과 함께 경전에 대해 집중 학습을 진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정학유는 이 기간에 대해 아예 기록을 남기지 않아 구체적인 학습 내용은 전혀 알 수가 없다. 당시 정학유는 흑산도에 머물면서 경전 학습에 그다지 큰 흥미가 없었던 듯하다. 그렇지 않으면 공부 내용을 번거롭게 나열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다산은 큰 아들 정학연에게도 자신과 주고 받은 문답을 하나도 남김없이 기록으로 남기게 했었다. 정학유가 학문에 그다지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태도는 정약전에게 상당한 실망을 안겼던 듯하다. 정약전은 정학유가 다녀간 뒤 다산에게 보낸 편지 「시다산(示茶山)」 11에서 이렇게 썼다.

학포(學圃)의 지식과 학문은 지난날의 그와는 확연히 달라졌더군. 다만 그 조금하고 꼭 막힌 점만은 크게 걱정일세. 「화기잡(和己箴)」과 「경기잡(敬己箴)」이야말로 그의 병통에 꼭 맞는 좋은 약재일세. 쓸데없이 문장의 원고만 꾸미느라 체득하여 행함을 하지 않아서야 되겠는가? 자네가 두 아들의 병통을 아울러 지녔다고 말했는데, 이는 겹사이고 또한 군자가 자기 스스로를 나무라는 뜻에는 해가 되지 않을 걸세. 내 생각에 말로 가르치는 것이 행동으로 가르치는 것만 못할 듯싶네. 먼저 자기 자신부터 화경(和敬)의 공부에 더욱 힘써서 두 아들로 하여금 이를 보고 느낌이 일어나서 덕스런 그릇을 이루게 한다면, 어찌 다만 황금이 1만 개의 바구니에 든 것일 뿐이겠는가? 힘쓰시게 나. (圃兒知識學問, 非復阿蒙. 但其編急塞滯, 爲大患. 和己敬己二箴, 乃其對病良劑, 而空賁文藁, 不曾體行云耶. 君言兼二子之病而有之, 此自謙而亦不害爲君子之自訟. 吾意言教不如身教. 先從自己, 益務和敬之工, 使二子觀感興起, 得成德器, 則豈但黃金萬籬而已耶. 勉之.)

글 속에 언급한 「화기잡(和己箴)」과 「경기잡(敬己箴)」은 『다산시문집』 권 12에 「화기재잡(和己齋箴)」과 「경기재잡(敬己齋箴)」이란 제목으로 실려 있

다. 「화기재잡」은 정학연에게 준 글이고, 「경기재잡」은 정학유에게 준 글임이 이 편지를 통해 한층 분명해졌다.<sup>6)</sup>

#### 4. 「부해기」의 주요 내용

이제 「부해기」에 보이는 흥미로운 내용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강진에서 출발해서 흑산도에 이르는 뱃길의 여정이 잘 드러나 있고, 당시 선박 운행의 방식을 알 수 있다. 「부해기」의 서두를 보면 다산은 정학유의 손을 잡고 울면서, 자신은 물에서 살아 편하지만, 저 구름바다를 보고 있노라면 마음이 무너진다면, 아들에게 한번 다녀올 것을 부탁하였다. 이것이 정학유가 험난한 흑산도 길을 떠나게 된 동기였다.

정학유는 먼저 강진 다산초당에서 출발해서 황령점(黃嶺店), 즉 누리개를 거쳐 월출산을 넘어 영암 도씨포(桃氏浦)로 이동했다. 도씨포는 지금의 영암군 도포리이다. 영산강 하구언이 생기기 전에는 도포리 앞에 선착장이 있었다. 지금은 모두 논밭으로 변한 이곳에서 정학유는 흑산도로 쌀 110석을 싣고 가는 배를 얻어타고 출발했다. 배에는 모두 8명의 선원이 탔다. 곡식의 무게 때문에 배는 수면과 한뼘 남짓의 여유밖에 없을 정도로 무겁게 내려 앉았다.

6) 「화기재잡」과 「경기재잡」은 『다산시문집』 권12에 실려 있다. 고전번역원의 번역에는 “농사일을 배우다 보면 성격이 거칠어지고 패려하게 되는 수가 많으므로 그러한 병통을 바로잡으려는 뜻에서 스스로 그 사는 집에 제(題)하기를 ‘화기재(和己齋)’라 하였고, 포전(圃田)의 일을 배우다 보면 성격이 혹 경조(輕躁)해지게 되므로 그러한 병통을 바로잡으려는 뜻에서 그 사는 집에 스스로 제하기를, ‘경기재(敬己齋)’라 하였다.(學稼性多怫戾, 欲矯其病, 自題其室曰和己齋. 學圃性或僥窳, 欲矯其病, 自題其室曰敬己齋.)”로 되어 있다. 학가(學稼)와 학포(學圃)는 학연과 학유의 초명인데, 이것을 ‘농사일을 배우다 보면’이나 ‘포전의 일을 배우다 보면’으로 풀이하는 바람에 다산이 두 아들을 위해 맞춤형으로 내린 훈계라는 점이 드러나지 않았다.

배는 흑산도까지 가는 동안 모두 네 차례 선왕제(船王祭)를 올렸다. 출발 전과 목포보에서 큰 바다로 나가기 직전, 그리고 송도 앞 바다와 교맥섬 인근에서다. 선왕제를 올리는 지점이 따로 있다기보다는 출발 전과 큰 바다로 나가기 직전, 또는 일기가 몹시 불순해서 뱃길이 위험하다는 판단이 들 때마다 올렸다. 바람의 방향이 바뀌면 닻을 내리고 나아가지 않았다. 내해에서는 배 위에서 잠을 자거나 인근 섬의 민가에서 묵었다.

중간중간 해당 지명의 유래와 풍속 및 인근 유적지에 대한 소개도 잊지 않았다. 정개도(鼎蓋島)를 소당섬이라 한다거나, 죽진(竹津)을 ‘대라래(大羅來)’, 심촌(深村)을 ‘기품이(其品伊)’, 교맥도(蕎麥島)를 ‘모밀섬’이라 한다는 등 우리말 지명을 나란히 적어 당시 지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또 높새바람을 고조풍(高鳥風)이라 쓰고, 새가 을(乙)이고 을이 동방을 나타내므로 높새가 북동풍을 뜻한다는 등의 풀이를 보탰다.

정개도를 지날 때는 인근의 학성군(鶴城君) 김완(金完, 1577-1635)의 묘소와 그에 얽힌 설화를 소개하였고, 고하도에서는 충무공유적비를 찾아 보고 고로(故老)의 전언을 빌어 당시의 전설을 채록하기도 하였다. 압해도를 바라보면서는 압해 정씨의 시조인 정정승의 묘소에 대한 감회를 쓰고, 팔금도에서는 낙지 잡는 일로 생계를 꾸려가는 섬 사람들의 생활을 적었다. 이밖에 관청도가 예전 고려 때 관청이 있어서 이런 이름을 얻은 사연과, 그밖에 지나고 들른 곳에 관한 정보를 기록해 놓아, 흑산도로 가는 연해 섬들의 인문 지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2월 12일, 정학유는 흑산도가 멀리 바라다보이는 교맥섬 인근에서 난생 처음으로 고래 5마리와 만났다. 이 광경은 그를 대단히 흥분케 했다.

막 밥을 먹으려는데 갑자기 큰 소리가 바다 가운데에서 일어나니 하늘을 쪼개고 땅을 찢는 듯하였다. 뱃사공이 먹던 수저를 놓쳐버릴 정도였다. 고래

다섯 마리가 나와 노닐며 멀리서 거슬러 왔다. 그중 한 마리가 하늘을 향해 물을 뿜는데, 그 형세가 마치 흰 무지개 같고, 높이는 백 길 남짓이었다. 처음 입에서 물을 뿜자 물기둥이 하늘 끝까지 떠받치는 것 같았다. 하지만 도리어 옥 같은 눈이 땅 위로 떨어졌다. 햇빛에 반사되어 비치자 광채가 현란하였으니, 참으로 기이한 광경이었다. 물을 뿜고는 소리치고, 소리치다가 물을 뿜으니 이와 같은 것이 한 식경이나 되었다. **대략 한 차례 물을 뿜고 한 차례 소리치는 것이 4~50차례 이상이었다.** 그 소리는 마치 짐채만큼 큰데, 쇠덩이를 내려치는 듯하였다. 짐채만큼 커서 무쇠 쟁반에서 소리가 나는 것 같았다. 급하고 빠른 것이 우레소리보다 더했다. 다만 우레 소리는 우르릉거리는데 반해, 고래의 소리는 쩌렁거렸다. 고래 두 마리는 배 왼편에 있었는데, 교맥도를 스치며 동쪽으로 갔다. 오른쪽에 있던 고래 세 마리는 송도(松島)를 바라보며 동쪽으로 갔다. 소리친 것은 왼편의 고래였다. 물을 뿜을 때는 고개를 치켜 등마루를 솟구치니, 마치 물건을 운반하는 큰 배와 같았다. 수면에서 몸을 뒤집자 검은 거죽이 몹시 어두웠고 비린내가 확 끼쳐 왔다. 겁이 나서 가까이 할 수가 없었다. 몇 리를 더 가고 나서야 겨우 기운을 펴고 숨을 쉴 수 있었다.<sup>7)</sup>

고래가 물을 뿜으며 스쳐갈 때 비린내가 끼쳐왔을 정도였고, 어두운 빛깔의 검은 거죽까지 관찰할 수 있었을 정도여서 그는 놀라서 잔뜩 겁을 집어 먹었던 모양이다. 고래를 처음 본 감격을 정학유는 시집 쪽에 실린 「쾌재행. 다섯 고래에게 주다(快哉行贈五鯨)」에서 다음과 같이 더 상세한 묘사를 통해 재현해냈다.

통쾌하고 통쾌하다 이다지도 통쾌한가  
다섯 고래 일시에 바다에 떠서 오네.  
바다 물결 솟구치고 온갖 괴물 달아나니  
한 번 울자 천지가 갈라져 열리누나.

7) 이하 「부해기」의 해당 원문은 [부록]으로 미룸.

옥기둥 뺏어내자 하늘까지 솟구치고  
 무지개다리 굽혀 짓자 만 길 하늘 돌아오네.  
 좁은 골짜기 우레 소리 허공엔 벽력 치고  
 궁벽한 산 폭포가 절로 소란스러운 듯.  
 뚱뚱 북이 섞여 울자 잔에 따른 물 마르니  
 부끄럽다 그때에 기이함에 놀란 것이.  
 통쾌하다 하늘 연못 만 리에 물 가득하니  
 인간 세상 쾌남자가 여기에 배를 놓네.  
 지느러미 헤엄침에 거리낄 것이 없고  
 기운 떨쳐 소리 내도 그 누가 금지하랴.  
 벗들끼리 교유하니 덕과 힘이 갈아져서  
 쓸쓸히 지기(知己) 적음 근심하지 않는도다.  
 갈 길이 드넓어도 온갖 법도 행하니  
 어깨 밀쳐 앞 다투는 세속을 비웃는다.  
 예전에 다산에서 산 샘물을 뚫을 적에  
 돌을 포개 못 만들어 무너짐을 막았었네.  
 피라미 한 무리가 가늘기 참 같은데  
 발랄하게 뛰놀며 어지러이 기뻐했지.  
 창포 잎과 연뿌리에 숨을 집을 만들고  
 진창에서 빼금대며 주림 갈증 푸는구나.  
 큰 고래 잡아다가 이 가운데 놓아두면  
 웅색하여 발광하며 간과 폐가 찢어지리.  
 내 인생 귀퉁이서 괴로움과 만나니  
 언제나 서글픔이 이 내 몸에 많았다네.  
 가고 음이 참으로 밭 묶인 참새 같고  
 움츠림 언제나 굴레 묶인 망아질세.  
 호방한 성품 술 즐겨도 술 만날 일이 없어  
 한 봄 내내 마신 것이 고작 한 병 술이로다.



통쾌하다 너 고래야 배 가득 물 마시며  
 설산 같은 큰 이빨로 상어 놓어 먹는구나.  
 어이 내게 한 잔 술과 고기 한 점 나눠주어  
 내 낮빛 잠시나마 기쁘게 안 해주나.

快哉快哉重快哉 五鯨一時浮海來  
 海波沸騰百怪遁 一吼天地爲劈開  
 噴出玉柱擎碧落 屈作虹橋萬丈天半回  
 窄谷雷聲空霹靂 窮山瀑布自喧豗  
 布鼓交鳴勺水盃 愧煞當年驚譎瓌  
 快哉天池萬里水 縱此人間快男子  
 運鱗掉鬣無妨礙 逞氣放聲誰禁止  
 朋類交遊德力同 不患蕭條少知己  
 徑塗脩闊萬軌行 側肩爭門笑朝市  
 憶昨茶山鑿山穴 疊石爲池防潰缺  
 魚苗一隊細如針 潑刺跳騰紛自悅  
 菖葉藕根作廬蔽 吮沫淤泥解飢渴  
 若把長鯨置此中 壅塞發狂肝肺裂  
 我生苦遭小方隅 惻惻常多七尺軀  
 去來真同縛足雀 局促長如轅下駒  
 性豪業嗜不逢酒 一春痛飲纔一壺  
 快哉汝鯨飲水常滿腹 雪山巨齒啗鯨鱸  
 何不分我一杯又一鬮 使我顏色得暫愉

정학유는 고래의 호쾌한 수영(遊泳)을 지켜보다가, 그 거침없고 호쾌한 모습이 마치 세속을 비웃는듯하다고 썼다. 처음엔 너무 놀라 움츠러들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인생에서 다시 못볼 통쾌한 장면이어서 그때 놀란 일이 부끄럽기만 하다고 했다.

이후 그는 다산 초당에서 산 위의 산혈(山穴)을 뚫어 샘물을 끌어와 연못을 만들고, 피라미 때를 풀어놓아 그들이 노니는 모습을 보며 기뻐했던 일을 떠올리며, 저 큰 고래를 그 연못에 넣으면 발광하여 간과 폐가 찢어질 것이라고 했다. 어느덧 고래에 자신을 이입하여 늘 움츠려 발 묶인 참새나 굴레 묶인 망아지처럼 지내온 시간들이 고래의 통쾌한 호흡과 헤엄을 보는 순간 후련하게 풀렸음을 술회하고 있다.

강진에서 흑산도까지는 무려 9박 10일이 소요되었고, 중간중간 날씨의 변수 때문에 예측하기 힘든 어려움이 도처에 잠복된 위험한 여정이었다. 배를 오래 타본 적이 없던 정학유가 거센 파도와 맞서 멀미를 견디는 것은 대단히 괴로웠을 것이다. 바람이 잔잔해서 노를 저어 가야만 했을 때, 오히려 자신은 다행스러웠다고 적은 대목을 통해 짐작한다.

둘째, 정약전의 흑산도 유배 생활에 대한 알려지지 않았던 정보를 제공한다. 정학유는 중부와 처음 만나 집안의 대소사를 전하고, 옛 벗들의 근황에 대해 묻는 질문에 대답하였다. 그 느낌이 어부가 무릉도원에 들어간 한나라 적 이야기를 하는 것과 다를 바 없었다고 썼다. 또 2월 13일의 기록에서는 “중부께서도 처음에는 우이도에 계시다가, 집과 곡식 마련이 불편한지라 을축년(1805) 여름에 큰 섬으로 이주하셨다. 처음에는 보촌(堡村)에 사시다가 얼마 안 있어 사미촌으로 옮기셨다.”고 적어, 정약전의 흑산도 생활에 대한 귀중한 정보를 남겼다.

또 3월 1일 일기에는 “보촌의 소교(小校) 이행묵(李行默, 1765-1850)의 집은 중부께서 예전에 살던 곳이다. 사람됨이 넉넉해서 온 섬의 어른 노릇을 했다. 집은 정결하고 넓어서 서울과 다름이 없었다”고 썼고, 또 같은 날 일기에는 정약전의 생일을 맞아 소사미(小沙尾)의 냇가 바위에서 생일 잔치를 마련했는데, 예전 절이 있던 터에 정약전이 옮겨와 살 뜻이 있었다는 기술도 남겼다. 이곳 소사미는 흑산도 안에서 유일하게 바다가 보이지 않아

서 마치 내륙의 산골짜기 같은 분위기가 나는 곳이었다. 이것으로 당시 정약전의 심정이 헤아려 볼 수가 있다.

당시 정약전은 서당을 열어 섬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다. 2월 13일 일기에는 서당에서 공부하던 학동 하나가 당시를 배우다가 ‘마상봉한식(馬上逢寒食)’이란 구절에서, 말이 어떻게 생긴 동물이냐고 묻는 대목이 나온다. 또 정학유가 아버지가 가르쳐준 방법에 따라 흑산도의 산개를 삶아 국을 끓여 올리자, 온갖 요망한 말이 들끓은 일도 같은 날 일기에 보인다. 당시 건강을 많이 잃었던 정약전의 건강 회복을 위해 다산이 산개를 잡는 법과 국 끓이는 방법을 설명한 것은 널리 알려진 얘기로, 1811년 겨울에 다산이 보낸 「상중씨(上仲氏)」(14)<sup>8)</sup>에 그 상세한 내용이 보인다.

정학유가 정약전의 생활 공간의 세부나 내면 상태에 대해 구체적인 기록을 남기지 않은 것은 다소 아쉽다. 정리 과정에서 편집과 자기 검열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당시 정약전의 생활 공간이나 주변 환경, 내면 술회, 학술적 토론의 내용 등 좀더 개인적인 시선에서 관찰한 내용을 좀더 풍부하게 담아내지는 못했다.

셋째, 흑산도의 여러 풍경점에 대한 소개와 묘사가 자세하여, 이를 통해 흑산도의 자연지리와 인문 환경에 대한 이해를 도와준다. 그리고 개별 풍경점에 대한 묘사는 흑산도의 관광 자원으로서의 활용가치 또한 상당히 높다.

2월 16일 일기에서 흑산도 꼭대기의 홍석(鴻石)이란 너럭바위는 수백 명이 앉을 만하고, 바위가 병풍처럼 둘러 있고, 바위 틈에서 맑고 찬 샘물이

8) 「상중씨(上仲氏)」(14): 다산이 손암에게 보낸 편지 중 가장 길다. 편지 제목 아래 ‘신미동(辛未冬)’ 즉 1811년 겨울에 쓴 편지라고 적혀 있다. 수십 개의 항목 안에 다양한 화제를 담았다. 당시 중풍으로 마비가 와서 혀가 뻗뻗한 정황을 말하면서, 도인법의 수련과 안정이 필요한 줄 알지만 잡념을 잊으려고 공부에 몰두하고 있음을 말했다. 또 정약전이 고기를 입에 대지 못한다고 한 말에 대한 염려를 적고, 흑산도의 산개 잡는 법과 삶는 법을 설명했다.

흘러나온다고 적었다. 이곳은 현재 사촌 마을 뒷산을 통해 올라가는 정상길을 따라 30분 넘게 올라가야 나오는 곳이다. 사미촌 포구의 나사동, 일명 소라굴에 대한 설명도 흥미롭다.

19일에 중부를 모시고 나사동(螺螄洞) 방언으로는 소라굴이다. 으로 놀러갔다. 서궁의 『사고려록』에, “혹산은 처음 바라보면 지극히 높고 가팔라서 산세가 여러 겹으로 겹쳐져 있다. 앞쪽에 작은 봉우리가 있는데 가운데가 비어 마치 동굴 같다. 양쪽 사이에 시내가 있어 배를 감출 만 하다.”고 하였다. 이것이 바로 나사동을 두고 한 말이다. 나사동은 사촌(沙村)을 막아주는 문이 된다. 바위 구멍이 움푹 패여 형세가 마치 무지개 같은데 높이는 4~5장 가량 된다. 처음 들어가면 웅성(壘城)과 같고 더 들어가면 음삼하고 킁킁해서 찬 기운이 뼈에 저민다. 십여 걸음을 가면 바위가 또 우뚝하게 열리면서 골짜기가 환해지고 해와 달이 드러난다. 고개를 내밀어 굽어보면 어지러운 바위가 답쌓였고 성난 물결이 들이쳐서 우르릉거리다가 바람과 우레가 때려 대는 것만 같았다. 내 생각에 이발(李渤)의 석종산(石鐘山)이 이와 같았을 것이다. 천지가 처음 개벽할 적에 대개 이 흙산이 바람과 물에 씻긴 바 되어 살이 떨어지고 뼈만 남아 그 형상이 등그렇게 말려 돌아가 마치 나사가 도는 것 같았으므로 이 같은 이름을 얻은 것이다. 어지러운 바위 너머로는 언덕의 형세가 감싸 안았다.

현재 이 소라굴은 사미촌의 부두 곁에 있다. 다만 방과제 등에 의해 가려져 잘 보이지 않고, 이 굴의 명칭은 현지인에게조차 알려져 있지 않다. 기록에 따라 확인한 풍광은 특별히 아름다웠는데, 현재는 진입 자체도 쉽지 않고 일체의 표지도 없는 실정이다.

또 작은 섬 두 개가 앞쪽에 있으니 이름하여 꽃섬[花苔]이라 한다. 바람의 힘을 조금 막아주어, 서궁이 말한 배를 감출 수 있다고 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포구 여자로 꽃섬에 들어가는 자는 모두 뗏목을 탄다. 골짜기에 똑바로

앉아있노라면 이따금 한 여인네가 머리를 풀고 젓가슴을 드러낸 채 바다에 떠서 가곤 하였다. 괴이하게 여겨 물어보니, “이는 이른바 교인(蛟人, 인어)입니다.”라고 하였다. 하지만 피부가 검어서 예쁘게 보이지는 않았다.

라고 한 대목도 흥미롭다. 전복이나 성게를 채취하는 해녀를 인어라고 말한 듯하다.

또 3월 1일 기사에 “보촌에 행관이 있는데, 초가집 몇 칸뿐이었다. 촌락은 제법 조밀하였다. 조암(鰲巖)의 아래로는 맑은 못이 임해 있어 노닐며 감상할 만하였다.”고 한 대목 중의 조암은 현재 흑산면 진리 바닷가에 있는 신안철새전시관 뒤편으로 만입되어 돌아드는 연못가 바위를 가리킨다. 현지에서는 송어 바위로 부른다.

이처럼 흑산도 안팎의 여러 풍경점에 대한 묘사와 소개는 오늘날 흑산도의 관광객을 위한 자료로도 소중한 가치가 있다. 최근 흑산도에서 정약전 유배관련 둘레길 개발 작업도 진행되고 있는데, 이들 기록이 요긴한 참고가 될 수 있다.

넷째, 흑산도의 풍속과 특산, 주민 생활, 표류선과 관가의 폐해 등에 대한 증언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특별히 2월 13일 기사에, “흑산도는 길이가 30여 리이고 너비는 10리에 지나지 않는다. 온 산이 모두 검은 돌인데 그 빛깔은 옷칠한 것 같아 한 점의 흰 자갈도 없다. 땅 깊은 곳에 들어가 있는 것에 흑 벼루감이 있으니 흡주(歙州)에서 나는 것만 못지 않다.”고 한 대목은 흑산에서 나는 벼루감으로 좋은 석재를 섬 사람들이 쓸모를 몰라 썩힌다는 내용이다.

또 같은 날 기록에 곡식은 기장과 보리가 조금 나고, 나무는 산대와 석류, 동청이 있고, 새는 까마귀와 솔개, 닭과 참새, 제비 뿐이라고 했다. 짐승은 개와 소, 고양이와 쥐가 있다. 여송까지 표류했다가 돌아온 문순득의 이야기도 주목을 끈다. 정약전이 우이도에 머물 당시 문순득의 집에서 살

았으므로 당시 들은 이야기를 정학유에게 전해준 듯하다. 비교적 상세한 내용을 기록했다. 표류선 이야기도 나온다. 1808년 12월에 흑산도 장섬항에 들어온 중국 배가 암초에 부딪쳐 부서졌고, 배에는 감초가 가득 실려 있었다. 죽은 사람의 주머니에서 『관화(官話)』란 책을 얻은 사연과 수록 내용도 예시되어 있다. 이와 함께 그들의 유해가 아무도 거두지 않은 채 당시까지 백사장에 그대로 놓여 있었다면서, 관리와 토교(土校)의 가혹한 침탈로 인해 표류민을 구조해주지도 않고, 죽은 뒤에는 묻어주지도 않는 참혹한 현실을 고발했다.

또 2월 18일 기사에는 흑산도 주변의 홍의도(홍도)와 가가도(가거도), 태사도, 만재도 등의 주민들에 대한 흑산도민의 우월의식을 설명하는 내용이 길게 이어져, 당시 섬주민들 간의 상호 인식을 가늠할 의미 있는 자료이다.

## 5. 『운포유고』 속의 흑산도 기행시와 이학규의 화답시

앞서 고래를 설명하는 대목에서 「쾌재행」 한 수를 읽어 보았지만, 『운포유고』 시집 권 3에는 흑산도 기행 당시에 지은 시 6제 12수가 함께 수록되어 있어, 「부해기」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수록 시문은 이렇다.

1. 「將往茲山, 早發桃氏浦, 滯風水宿.」
2. 「木浦堡」
3. 「晚泊高霞島, 讀李忠武碑」
4. 「快哉行贈五鯨」
5. 「茲山雜詩」 7수
6. 「遊茲山絕頂」

시는 도씨포를 출발하면서 바다 위에서 하루밤을 보내면서 쓴 시부터, 목포보와 고하도에서 각각 한 수 씩 지었다. 바다 위에서 고래를 만난 감회를 쓴 시가 있고, 흑산도에 도착한 뒤 그곳의 풍물을 노래한 7수와, 흑산도 절정에 올라 유람한 회포를 적은 장시 한 편이 더 있다.

이 가운데 『현산잡시』 7수는 나사동과 서궁의 『고려도경』 속 흑산도에 대한 언급, 그리고 표류선에 실고 온 감초가 포구 앞을 메우고 떠다는 모습과 『관화(官話)』 책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다. 또 바닷가에서 본 해녀와 흑산도의 야생화 한 산개, 흑산도 특산의 벼루돌, 문순득에 대한 전문, 그리고 병자를 미신으로 치성하는 섬의 속습 등을 소개했다. 그중 해녀와 산개를 노래한 시는 이렇다.

능파선자(凌波仙子) 옛 이름은 교인이라 부르는데  
 주궁(珠宮)에서 밤마다 비단 짠다 말들 하네.  
 홍녀(紅女)는 이제껏 한 치 비단조차 없어  
 봄바람 아직 찬데 벌거벗고 있구나.  
 凌波仙子舊名蛟 擣造珠宮夜織絹  
 紅女由來無寸帛 春風吹冷赤條條

사미포 앞 포구에서 건너편 꽃섬을 향해 헤엄쳐 가는 벌거벗은 해녀를 보고 호기심에 차서 이를 교인인가 여겨 노래한 내용이다.

금문(金門)<sup>9)</sup>의 붉은 개는 옛날의 불거린데  
 오늘에 현산에서 내 눈으로 보았네.  
 어이해 고달프게 타고난 성품 바꾸고서  
 단풍 숲서 무리져 짓음 몹시도 이상하다.

9) 한나라 궁문인 금마문(金馬門)의 약칭으로 보통 대궐이나 조정을 가리킨다.

金門赤犬舊流觀 今日茲山正眼看  
豈爲纍纍易天賦 楓林羣吠太無端

흑산도의 산개는 다산도 정약전에게 보낸 편지에서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거니와, 야생화한 개들이 무리를 지어 몰려다니는 모습이 몹시 기괴했  
던 듯하다.

문씨 집 남자가 오랫동안 떠돌면서  
유구와 여송의 배에 두루 올라 보았다네.  
천고에 아픈 마음 마카오의 선원들  
괴상한 말 귀 기울여 듣는 이 하나 없네.  
文家男子舊萍流 徧上流求呂宋舟  
千古傷心馬哥奧 無人傾耳聽鉤輶

제 1구의 문씨 집 남자란 문순득(文淳得, 1777-1847)을 가리킨다. 그는  
1802년 홍어를 사러 갔다가 태사도에서 우이도로 돌아오는 길에 풍랑을  
만나 표류하여 유구와 광동을 거쳐, 필리핀 루손까지 갔다가 3년 2개월만  
에 돌아왔다. 정약전이 문순득의 이야기를 듣고 기록한 「표해시말(漂海始末)」이 전해진다. 3구의 마카오(馬哥奧)에서 온 선원은 1801년 제주도에  
표류한 마카오에서 온 필리핀 출신 흑인 노예 5인의 이야기다. 문순득은  
이들과 직접 만나 이들이 마카오에서 왔고, 필리핀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  
주었으나, 이들은 끝내 자기 나라로 돌아가지 못했다.

또 가장 장편에 해당하는 「현산 꼭대기에서 노닐다(遊茲山絕頂)」에서는  
흑산도 최정상 봉우리에 중부와 함께 올라 바라본 호쾌한 풍광을 장쾌하  
게 묘사했다. 산에서 자라는 화목의 식생(植生)과 특트인 경관을 묘사하  
고, 역시 우물 안 개구리와 같았던 자신의 국소한 안목을 탄식했다.



한편 정학유의 기행 시문과 관련하여, 가까운 집안으로 신유사옥 때 다산과 동시에 김해로 유배되었던 이학규(李學逵, 1770-1835)가 자신의 『낙하생집(洛下生集)』 7책 「인수옥집(因樹屋集)」 중에 「정학포의 현산기행시에 화답하여(和丁學圃茲山紀行詩)」 12수를 남긴 사실이 주목된다. 이 작품은 정학유의 시집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맥락을 알 수 없는 작품이어서, 한번도 거론된 적이 없다. 금번 정학유의 기행문과 기행시가 발견되면서, 비로소 시 속의 내용이 가리키는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내용은 정학유의 「부해기」와 기행시를 읽고 나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모두 12수의 7언절구로 노래한 연작이다.

제 1수는 제주에 표류해온 여송인의 표류선에 관한 내용을 담았고, 제 2수는 정약전을 모시고 흑산도 절정에서 제주도를 바라보던 유람을 그려본 내용이다. 제 3수는 해녀의 복장과 인근 태사도 사람들을 업신여겨 ‘이승(夷丞)’이라 비하한다는 「부해기」 속의 기사 등을 부연했다. 제 4수는 흑산도에 사는 참새와 제비 이야기를, 제 5수는 기장과 벼가 나지 않는 기후와 보리 농사를 짓는 형편을 썼다. 제 6수는 말이란 동물을 모르는 섬 아이들과 흑산도의 산개 이야기를 소개했다. 제 7수에서는 광동에서 온 표류선과 『관화』 책자에 관한 설명, 제 8수는 흑산도의 흑석이 벼루감으로 좋다는 얘기, 제 9수는 흑산도 홍어와 성계, 이를 채취하는 해녀 이야기를 담았다. 10에서 12까지는 전체 글을 읽은 소감을 밝혔다.

그 중 제 5수는 이렇다.

푸른 기장 붉은 벼는 옮겨 오기 힘이 들고  
 개펄과 잔내 산엔 농작물이 많지 않지.  
 곳곳에 훈풍 부는 사월의 끝자락엔  
 보리 수확 그 풍미가 인간과 비슷해라.  
 靑梁紅稻輸間關 耕種無多瀉鹵山

處處薰風四月尾 麥秋風味似人間

흑산도에서 소출되는 곡식에 대한 기록을 본 뒤, 기장과 벼는 짝기운으로 인해 농사를 못 짓고, 사월 말에 보리 농사가 그나마 흑산도에서 나는 곡식이라고 적은 내용이다. 2월 12일과 2월 17일 일기에 나오는 ‘반석타맥장(盤石打麥場)’ 이야기와 2월 13일 기사 중 특산물 소개 기사를 엮어서 쓴 시다.

또 학생들이 말이 어떻게 생긴 짐승이냐고 물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쓴 제 6수는 다음과 같다.

소를 말에 비유하니 말은 차이 없건만  
아이들 괴이쩍음 많을까 걱정일세.  
새벽에 나무 하러 산 꼭대기 올라가서  
구름 다발 너머로 개 짖는 소리 누워 듣네.  
以牛喻馬語無差 惟恐羣蒙所怪多  
想得晨樵到山頂 臥聞犬吠出雲蘿

소만 알고 말은 모르는 아이들이 괴이하게 여기는 것이 당연하다 하면서, 구름 너머 산개들이 짖는 소리를 듣는다고 썼다. 산개는 앞서 여러번 나온 흑산도의 야생화한 개를 말한다. 마지막 제 12수는 이렇게 마무리 했다.

이 생에는 참으로 돌아가지 못하리니  
돌아올 때 얻는대도 늙은 뒤야 어이하리.  
내 이미 새 봄에도 기댈 데 더욱 없어  
풍진(風塵)과 천석(泉石)이 양쪽 다 어긋났네.  
此生未必眞歸去 縱得歸時奈老何  
我已新春益無賴 風塵泉石兩蹉跎

정학유 뿐 아니라 자신도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흑산도의 풍물에 대한 애뜻한 마음을 담았다. 당시 자신 또한 유배객의 처지에 놓여 있었던 이학규로서는 정학유의 기행문을 읽으면서 어긋나버린 지난 삶의 고리를 돌아보며 서글픈 심회를 엿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한편으로 유배지의 이학규가 정학유의 기행문과 기행시를 구해 읽은 것으로 보아, 다산과 이학규 사이에는 유배 이후에도 끈끈한 유대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다.

## 6. 맺음말

이상 새로 찾은 정학유의 『운포유고』에 수록된 흑산도 기행문 「부해기」와 흑산도 기행시 12수를 소개했다. 흑산도 기행문은 이제껏 1768년에 흑산도로 유배 간 김약행(金若行, 1718-1788)이 전염병을 피해 우이도에서 흑산도로 들어가 머물 당시 지은 기행문 「유대흑기(遊大黑記)」가 알려져 있을 뿐인데, 금번 정학유의 기행문이 발견됨으로써 흑산도에 관한 중요한 옛 기록을 추가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글에는 흑산도의 풍물과 오가는 뱃길에 대해 소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정약전의 유배 생활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다. 워낙 관련 기록이 영성할 뿐 아니라, 정보 자체가 빈약했던 정약전의 흑산도 생활 관련 자료를 일정 정도 복원할 수 있게 된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다만 정약전의 생활 공간이나 일상 생활에 대한 꺾진한 묘사가 없고, 중부와 나눈 학술 토론에 관한 자료가 거의 없는 것은 대단히 아쉽다. 정약전은 정학유가 돌아간 뒤 다산에게 보낸 편지에서 정학유의 조급한 성정에 대해 우려하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 이와 함께 이학규의 문집에 실린 「정학포의 현산기행시에 화답하여(和丁學圃茲山紀行詩)」 12수를 찾아서 함께 소개한 것도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이 자료의 발굴과 함께 2015년 허경진 교수가 연세대 도서관에서 소장한 필사본 『여유당집』에 수록된 정약전의 시 32제 40수를 발굴 소개함으로써 정약전의 흑산도 생활은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갖게 되었다.<sup>10)</sup> 이후 다산과 손암 사이에 오간 편지와, 『다산시문집』 등에 수록된 손암 정약전의 기타 저술을 포함하여 좀더 포괄적인 정약전에 대한 정리가 깊이 있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또한 이 기록이 신안군의 관광 자원을 한층 더 풍성하게 해줄 소중한 인문학적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10) 허경진(2015), 『손암 정약전 시문집』, 민속원.

## [부록]

### 1. 「부해기(浮海記)」 己巳(1808)

#### 2월 3일

지금 임금 원년 신유년(1801) 겨울에 **곧 가경 6년이다**. 중부(仲父)이신 손 암 선생께서 흑산도로 귀양 가셨다. 섬은 나주 바다 가운데 있으니 큰 바다를 천 리나 건너야 한다. 바람과 파도가 몹시 거세서 집안사람이나 부자 간이라도 감히 직접 가서 뵙지는 못하였다. 정묘년(1807) 봄에 학초(學樵)가 조운선을 타려고 행장을 이미 갖추었으나 병에 걸려 요절하고 말았다. 중부께서는 아득히 기다리시다가 달을 넘기고서야 굶은 소식을 들었다. 궁하고 외로운 처지를 슬퍼하다가 도리어 병이 되어 해를 넘기도록 앓아 누워 아침저녁을 기약할 수 없었다. 무진년(1808) 봄에 내가 강진에 가서 거칠게 아버님을 봉양하였다. 아버님께서 내 손을 붙드시더니 울면서 말씀하셨다. “나는 그래도 물에서 살아 주위 환경과 서책이 완연히 인간 세상과 다를 바가 없다. 저 구름바다를 바라보노라면 그 형편이 어떠하겠느냐. 네가 한 번 가서 뵙도록 해라.”

當寧元年辛酉之冬, **即嘉慶六年**. 仲父巽菴先生謫配黑山島. 島在羅州海中, 越洋千里, 風濤颯颯, 家人父子莫敢往觀. 丁卯春, 學樵欲乘漕舶, 行李既具, 遘疾而夭. 仲父盼望, 彌月乃得惡報. 恤焉窮獨, 轉爲疾疢, 踰年沈痼, 不保朝夕. 戊辰春, 余到康津, 粗修溫清, 家君執我手而泣曰: “吾猶陸居, 泉石圖書宛如人間, 顧瞻雲海, 斯何人哉. 汝其圖之.”

이듬해(1809) 봄 **가경 14년 기사년이다**. 2월 계사일에 **초3일이다**. 내가 다산으로부터 아버님과 작별하고 말을 타고 사십 리를 가서 황령점(黃嶺店)<sup>11)</sup>

11) 황령점(黃嶺店): 황령(黃嶺)은 오늘날 전남 강진군 성전면에 위치한 누릿재를 가리

에서 쉬었다. 또 사십 리를 가서 도씨포(桃氏浦)<sup>12)</sup>에서 잤다. 포구는 영암군(靈巖郡) 서쪽 20리에 있다. 포구 사람 나군이 마치 친척처럼 정성껏 대접하였다. 하지만 섬사람 차 아무개<sup>13)</sup>의 배가 이미 포구에 정박해 있었다. 배는 길이가 4장(丈)이고 허리너비가 1장 남짓이었다. 양쪽 끝이 뾰족해서 그 모양이 배 찌는 북과 같고 또 북어와도 비슷했다. 거룻배 치고는 작은 것인데 섬사람들은 이를 두고 중선(中船)이라고 말한다. 벼 110석을 실었다. 1섬은 20두이다. 배를 모는 자는 8명인데, 배 허리의 물에 잠기지 않은 부분이 1책(擘)도 되지 않았다. 손가락을 펴서 물건을 재는 것을 책(擘)이라 한다. 섬사람 이대근(李大根)은 경주 이씨로 그런대로 문자를 알았는데 제 입으로 팔별(八鬣)의 후손<sup>14)</sup>이라고 하였다.

越明年春 嘉慶十四年己巳 二月癸巳 初三日, 余自茶山辭于家君, 騎馬行四十里, 歇黃嶺店, 又行四十里, 宿桃氏浦 浦在靈巖郡西二十里, 浦人羅君款接如親戚.

킨다. 월출산 동쪽에 위치해 있으며, 영암에서 남쪽의 강진 및 해남으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노루재, 노릿재라고도 한다.

- 12) 도씨포(桃氏浦): 도씨포는 영암군 도포리(道浦里)의 옛 지명이다. 예전에는 마을 앞까지 바다가 들어오는 포구로 어업이 성행하였으나 영산강 하구언이 생긴 뒤 육지로 변했다. 도싯개, 도삿개, 도포라고도 한다.
- 13) 차 아무개: 흑산도 사리 마을에 가장 먼저 입도한 집안이 '차씨'로 알려져 있다. 현재 이곳에 거주하는 후손은 없다.
- 14) 팔별(八鬣)의 후손: 박팽년의 사위인 경주 이씨 이공린(李公麟)의 후손이라는 뜻이다. 이익의 『성호사설』 권8 「몽별(夢鬣)」에 이공린과 여덟 자라에 얽힌 이야기가 보인다. 이공린은 여덟 사람이 나타나 살려주기를 비는 꿈을 꾸고 부엌에서 요리되던 여덟 자라 중 일곱 마리를 살려 주었다. 이공린은 아들 여덟 명을 낳았는데, 이름을 이귀(李龜)·이오(李鰲)·이별(李鬣)·이타(李鼉)·이경(李鯁)·이곤(李鯤)·이원(李黿)으로 하였다. 그중 이원(李黿)은 사회를 당하여 참수되었다. 흑산도의 경주 이씨는 진리 마을에는 경주 이씨 창평공파 후손이 집성촌을 이루고 있는데, 이들은 영암 도포면 수산리에서 살다가 섬으로 들어왔다. 심리에는 청호공파 후손이 집성촌을 이루고 있는데, 영암 망호리에서 입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흑산도 거주 경주 이씨 후손 이영일의 제보에 따랐다.

然島人車某之船，已泊浦口，船長四丈，腰闊一丈餘，兩頭纖纖，狀如織梭。又如河豚，牒子之小者也。島人謂之中舶。載稻百一十石 每石二十斗。操舟者八人，腰舷之不入水者，不能一擘 布指度物曰擘。島人李大根鷄林之李也。粗解文字，自稱八鼈之孫。

## 2월 4일

이튿날 갑오일, 날씨 흐림. 동틀 무렵 사공이 선왕(船王)<sup>15</sup>에게 제사를 올리고, 제사를 마친 뒤에 배에 올라 닳줄을 풀었다. 배가 막 항구를 벗어나자 바람이 크게 불고 파도가 사나워 바로 닳을 내렸다. 도씨포와의 거리는 1궁(弓)<sup>16</sup>이었다. 뱃사람들은 땀을 달고 노름을 하였다. 두보의 시에,

장년과 삼로(三老) <sup>17</sup> 가 길게 노래하는 속에	長年三老長歌裏
대낮 높은 파도 중에 노름을 하는구나.	白晝攤錢高浪中 <sup>18</sup>

라 하였으니 물가의 풍속은 모두 같은 모양이다. 밤중에 달빛이 희미하였으므로 소동파의 시를 읊조렸다. 그 시는 이렇다.

미풍이 우수수 물풀을 불어가니	微風蕭蕭吹菰蒲
비가 오나 내다보니 호수 가득 달빛일세.	開門看雨月滿湖
어둔 조수 밀려와서 지렁이를 조문하고	暗潮生渚用寒蚓

15) 선왕(船王): 선왕은 배서낭이라고 한다. 배를 지켜주는 수호신의 의미이다.  
 16) 1궁(弓): 1궁은 화살을 쏠 때 표적과의 거리로 6척, 또는 8척을 말한다. 매우 가깝다는 뜻이다.  
 17) 삼로(三老): 뱃머리에서 삿대로 뱃길을 이끄는 고사(篙師). 장년(長年)은 뱃머리에서 삿대로 뱃길을 이끄는 고사이고, 삼로(三老)는 배의 고물에서 키를 잡는 소공(艚工)이다.  
 18) 장년과 삼로(三老)……노름을 하는구나. : 이 시구는 두보의 「기주가십절구(夔州歌十絕句)」 중 제7수의 3, 4구이다.

지는 달 버들에 걸려 매달린 거미 보네.

落月挂柳看懸蛛<sup>19)</sup>

越明日甲午, 陰暄. 黎明艚工祭于船王, 祭畢, 登船解纜. 纜出港口. 大風掀浪, 只得下碇. 距桃氏浦一弓地也. 舟人閉篷馬弔. 杜老詩云, “長年三老長歌裏, 白晝攤錢高浪中” 水俗皆同也. 夜有微月, 誦蘇長公詩. 其詩曰, “微風蕭蕭吹菰蒲. 開門看雨月滿湖. 暗潮生渚弔寒蚓, 落月挂柳看懸蛛”

## 2월 5일

이튿날 을미, 날씨 맑음. 해 뜰 무렵 배를 놓으니 조수가 지고 바람이 순하여 잠깐만에 5, 60리를 갔다. 정오가 되지 않아 정개도(鼎蓋島)<sup>20)</sup>에 이르렀다. 이곳 말로 소당섬이다. 높새바람(高鳥風)이 문득 마파람(馬兒風)으로 변하므로 마침내 닻을 내리고 나아가지 않았다. 그 모양은 마치 굴레를 벗은 천마의 네 발굽이 거침없이 단번에 천 리를 내달아 제어할 수 없다가, 갑자기 긴 구덩이와 큰 웅덩이를 만나 주춤하며 나아가지 못하는 것만 같았다. 이 때문에 안타까워 탄식하니 가는 길이 지체되어서 그런 것만은 아니었다. 새(鳥)는 을(乙)이니 을은 동방으로, 높새라는 것은 북동풍을 말한다. 오(午)는 말(馬)이니 말은 남방을 뜻한다. 정개도에는 학성군(鶴城君)의 묘가 있는데 학성군은 영암 사람이다. 그 힘이 범을 때려잡았으므로 이 곳 사람들은 그를 김 장군이라 하고 김히 이름을 부르지 못한다. 김완(金完)<sup>21)</sup>이

19) 미풍이 우수수 …… 거미 보네: 이 시는 소동파의 「중중야기(舟中夜起)」이다.

20) 정개도(鼎蓋島): 정개도는 섬 모양이 솥뚜껑처럼 생겼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다. 행정 구역으로는 오늘날 영암군 시종면에 속해있다. ‘소당’은 솥뚜껑의 우리말 이름이다. 지금은 육지로 변해 예전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여수에 별도의 정개도가 있으나 이 글 속의 섬과는 무관하다.

21) 김완(金完): 김완(1577-1635)은 조선 중기의 무신으로 지금의 영암군 서호면 봉해리에서 태어났다. 정유재란 중에 전라 병사 이복남 휘하에서 전공을 세웠으며, 1615년 이괄의 난 평정에 공을 세워 학성군(鶴城君)에 봉해졌다. 이후 황해도 병마절도사를



다. 밤에 별빛과 달빛이 몹시 밝았다.

翌日乙未, 晴. 日出放船. 潮落風順. 須臾行五六十里. 日未午, 至鼎蓋島  
 方言蘇當苦. 高鳥風忽變爲馬兒風, 遂下碇不進. 正如天馬脫羈, 四蹄無蹶,  
 一放千里, 莫之天閑. 忽遇長坑巨塹, 躑躅而不能進, 爲之嗟惋悼惜. 非爲  
 余滯行也. 鳥者乙也, 乙者東方也, 高鳥者良方也. 午者馬也. 馬者南方也.  
 鼎蓋島有鶴城君墓. 鶴城君者, 靈巖人也. 力扼虎. 土人謂之金將軍. 不敢  
 名也 卽金完. 夜星月皎潔.

## 2월 6일

이튿날 병신일, 맑음. 동이 트자 배가 출발했다. 순풍을 얻어 서쪽으로 40리를 가서 목포보(木浦堡)<sup>22)</sup> 앞에 닿으니 수면이 시원스레 툭 트여 있었다. 뱃사람은 이를 두고 나팔해라고 하는데, 위쪽이 좁고 아래쪽이 넓어서 그 모양이 나팔과 같기 때문이었다. 뱃사람이 이곳에 이르러 또 선왕(船王)에게 제사를 지냈다. 제사를 마치고 10여 리를 가자 역풍이 크게 일어나므로 고하도(高霞島)<sup>23)</sup> 앞에서 닻을 내렸다. 『여지승람』에는 고하도(高下島)라 하였다. 바람과 파도가 흥흥하여 멀미가 나 병이 날 지경이었으나 토할 정도는 아니었다. 이생과 함께 언덕에 올라 충무공 이순신(李舜臣)의 유적비<sup>24)</sup>를 읽었다. 이는 경종대왕 임인년(1722) 4월에 세운 것이다.

거처 사후에 병조 판서에 추증되었다. 현재 그 묘소와 신도비(神道碑, 임금이나 고관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무덤 근처에 세우는 비)가 영암군 시종면에 있다.

22) 목포보(木浦堡): 목포보는 오늘날 목포시 만호동에 있던 목포진(木浦鎭)의 수군진영을 말한다.

23) 고하도(高霞島): 고하도는 오늘날 목포시 달동에 속한 섬이다. 현재 목포대교로 물과 이어져 육로 통행이 가능하다.

24) 이순신(李舜臣)의 유적비: 이 비석은 현재 고하도에 서 있다. 비석의 명칭은 「유명조 선국 고삼도통제사 증좌의정충무이공 고하도유허기사비(有明朝鮮國 故三道統制使贈 左議政忠武李公 高下島遺墟記事碑)」이다. 남구만(南九萬)이 비문을 지었고, 조태구

고 영의정 남구만(南九萬)<sup>25)</sup>이 짓고, 조태구(趙泰耆)<sup>26)</sup>가 글씨를 썼으며 운곡(雲谷) 이광좌(李光佐)<sup>27)</sup>가 전액을 썼다. 지금으로부터 88년도 되지 않았는데, 이미 벗겨져 나가 읽을 수 없는 글자가 많았다. 대개 옛날 충무공께서 목포보의 장(將)이 되어 양식을 쌓아 백성을 모으고, 고하도 앞에서 왜구를 막아 목을 베고 사로잡은 것이 매우 많았다. 이 때문에 비석을 세워 공을 기록한 것이다. 섬에 사는 고로(故老)의 말은 이러했다.

“하루는 양식이 다 떨어지자 왜인이 이를 염탐해 알고서 우리 성채를 범하려 하였습지요. 이공께서 가마니를 모아다가 **속언에 빈 자리라 한다.** 흙을 채워 산처럼 만들고 따로 석회즙을 가져다가 항구에다 버렸습니다. 그것이 마치 쌀을 이는 것 같았으므로, 왜인이 양식이 여태 다 떨어지지 않았다고 여겨 감히 침범해오지 못했답니다.”

저녁에 다시 배로 들어와 밥을 조금 먹고, 촌사에 투숙하였다. 밤새도록 큰 바람이 불어 소리가 천지를 뒤흔들었다.

翌日丙申, 晴. 日出發船, 得便風西行四十里, 到木浦堡前, 水面頗闊. 舟人謂之喇叭海, 爲其上兌下闊, 狀如喇叭也. 舟人到此, 又祭船王. 祭舉行十餘

---

(趙泰耆)가 글씨를 썼으며, 이광좌(李光佐)가 전액을 썼다. 비문은 17행 48자이다. 비문의 내용이 『약천집(藥泉集)』 권19에 『고하도이충무공기사비(高下島李忠武公記事碑)』란 제목으로 실려있다.

25) 남구만(南九萬): 남구만(1629-1711)은 조선 후기의 문신이다. 서인(西人)으로서 남인(南人)을 탄핵하였다. 우의정, 좌의정을 거쳐 영의정까지 지냈다. 기사환국 후에는 유배되기도 하였다. 문집에 『약천집(藥泉集)』이 있다.

26) 조태구(趙泰耆): 조태구(1660-1723)는 조선 후기의 문신이다. 소론(少論)의 영수로서 노론(老論)과 대립하던 중 노론 4대신의 주청으로 세제의 대리청정이 실시되자 이를 반대, 대리청정을 환수시켰다. 이어 노론 4대신을 역모죄로 몰아 사사(賜死)하게 한 뒤 영의정에 올랐다.

27) 이광좌(李光佐): 이광좌(1674-1740)는 조선 중기의 문신이다. 1727년 실록청 총재관이 되어 『경종실록』, 『숙종실록』 등의 편찬을 맡았으며, 영조에게 탕평을 상소하여 당쟁의 폐습을 방지하기도 하였다.

里, 逆風大起, 下碇于高霞島前 輿地勝覽作高下島. 風濤洶湧, 眩運成疾, 不至嘔水也. 與李生上岸讀李忠武公舜臣遺跡碑, 乃我懿陵壬寅四月所建也. 故領議政南公九萬撰趙泰耆書雲谷李公光佐篆. 距今不過八十八年, 字已剝落, 多不可讀. 蓋昔忠武公爲木浦堡將, 庀糧聚民, 以禦倭寇於高霞島前, 斬獲甚多, 故立石紀功也. 島中故老之言曰: “一日糧竭, 倭人謀知之, 欲犯我寨. 李公聚藁苞 俗言曰空席, 實土爲山, 別取石灰汁, 潑棄港口, 有若浙米然者, 倭人以爲糧尙未竭, 不敢來犯.” 既夕還入舟點飯, 投宿于村舍. 終夜大風, 聲撼天地.

## 2월 7일

2월 7일 정유, 흐린 구름이 개지 않았다. 한낮이 되자 우레를 동반한 비와 큰 바람이 불어, 고하도의 촌가에 머물렀다. 주인집의 열 살 난 아들이 증선지(曾先之)의 『사략(史略)』 첫째 권을 안고 와서 배움을 청하였다. 훈장에게 배운 것을 점검해 보니 포저(苞苴)<sup>28)</sup>의 ‘저(苴)’ 자를 ‘차(且)’로 읽고, 여알(女謁)<sup>29)</sup>의 ‘알(謁)’은 ‘갈(碣)’로 읽는다. ‘도도평장(都都平丈)’<sup>30)</sup>은 안이나 바깥이나 다 같은 모양이다. 『요산당기(堯山堂紀)』에 이렇게 말했다. “시골 선생이 제자를 가르치면서 ‘옥옥호문재(郁郁乎文哉)’를 ‘도도평장아(都都平丈我)’로 읽었다.” 이 때문에 한차례 웃고서 내가 그 잘못을 바로 잡아 주었다. 그러자 주인이 술을 내오고 생선회로 대접하였다. 또 한 가지 기이한 일이었다.

翌日丁酉, 陰雲不晴. 至午. 雷雨大風. 留高霞島村家. 主人之子, 十歲者,

28) 포저(苞苴): 포저는 물건을 싸는 것과 물건 밑에 까는 것이라는 뜻으로 뇌물로 보내는 물건을 이르던 말이다.

29) 여알(女謁): 여알은 대궐 안에서 정사(政事)를 어지럽히는 여자이다.

30) 도도평장(都都平丈): 도도평장은 『논어(論語)』 ‘팔일(八佾)’편에서 “옥옥호문(郁郁乎文)”이라 한 것을 무식한 시골 훈장이 잘못 읽어 ‘도도평장(都都平丈)’이라고 가르쳤다는 데서 나온 말이다. 무식한 훈장이 학생들을 잘못 가르치는 것을 비꼬아 하는 말이다.

抱曾先之史略初卷, 請學. 考其所學於塾師者, 苞苴之苴, 讀之如且, 女謁之謁, 讀之如碣. 都都平丈, 中外唯均. 堯山堂紀云: “村夫子教授弟子, 郁郁乎文哉, 讀作都都平丈我.” 爲之一哂, 余爲正譌. 乃翁携酒鱸魚以禮之, 又一奇也.

## 2월 8일

무술일, 맑음. 동이 트자 닻줄을 풀고 서쪽으로 10여리를 갔다. 바닷가의 여러 산들이 이곳에 이르러 대문이 되었다. 이름은 죽진(竹津)이다. 방언으로는 ‘대라래(大羅來)’라 한다. 동쪽으로 우수군 절도영이 바다다 보이는데 100리가 채 되지 않았다. 이 날은 날씨가 따뜻하고 물결이 고요해서 거울 같은 수면이 마치 기름을 뿌려 둔 것 같았다. 해문을 조금 벗어나자 구름 안개가 아스라하고, 저 멀리 섬들은 공이나 총알 같았다. 노 젓는 소리가 빼거덕거리니, 어부가로 서로 화답하였다. 뱃전에 편히 앉자 자못 거나한 흥취가 있었다. 이곳의 지명은 교거해(攪車海)라 하는데, 방언으로는 씨아해(氏兒海)<sup>31)</sup> 물의 형세가 감돌아 나가는 것이 마치 박면교거(剝棉攪車)<sup>32)</sup>와 같기 때문이다. 종일 바람이 없어 간신히 사십 여리를 갔다. 지좌도(只佐島)<sup>33)</sup>를 지나 밤중에 팔금도(八琴島)<sup>34)</sup>에 정박하였다. 언덕으

31) 씨아해: 오늘날은 ‘시아바다’로 부른다.

32) 박면교거(剝棉攪車): 박면교거는 목화 씨앗을 앗아내는 기계 장치로, 나사 모양으로 된 사이에 목화를 넣으면 나사가 돌면서 씨앗을 분리시킨다. 교거는 우리말로 ‘씨앗’라 한다.

33) 지좌도(只佐島): 지좌도는 신안군 안좌면(安佐面)에 속한 섬으로, 기좌도(箕佐島)와 안창도 사이의 갯펄이 매립되어 하나의 섬으로 합쳐져 오늘날은 안좌도라고 부른다. 1896년 기좌도·안창도·자라도는 기좌면이라 하여 지도군으로, 팔금도는 완도군으로 편입되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기좌면은 무안군에 편입되었다.

34) 팔금도(八禽島): 팔금도는 현재 전라남도 신안군 팔금면에 속한 섬이다. 새 형상의 금당산이 있으며, 섬 주위에 매도, 거문도 등 8개의 섬이 있어 ‘여덟 팔(八)과 새 금(禽)’을 따서 ‘팔금도’라 했다고 한다. 여기서는 ‘금(禽)’ 대신 ‘거문고 금(琴)’자를 썼다. 지금은 목포를 거쳐 암태도에서 이어지는 다리로 연결되어 있다.

로 올라가 촌가에서 잤다.

翌日戊戌，晴。日出解纜，西行十餘里。海岸諸山，至此作門。名曰竹津。方言大羅來。東望右水軍節度營，不滿百里。是日日氣暄靜，鏡水如油。稍出海門。雲煙杳茫，極目島嶼。如毬似丸。舳聲咿夏，漁歌互答。穩坐舵樓，頗有逸興，此地名曰攬車海。方言氏兒海。爲水勢廻轉，如剝棉之車也。終日無風，僅行四十餘里。過只佐島，夜泊八琴島。上岸宿村家。

## 2월 9일

기해일, 아침 흐림. 닻줄을 풀어 항구에 이르자 큰 바람을 만났다. 폭우가 쏟아지므로 배를 돌려 항구로 드니 거센 물결이 배를 온통 뒤흔들어 기울어져 뒤집힐 지경이었다. 배에 탄 사람들이 모두 다급하게 가슴을 쳤다. 간신히 앞서 있던 곳에 배를 대고 다시금 촌가에서 잤다.

나는 본래 압해 사람이다. 압해도(押海島)는 팔금도(八琴島)의 서북쪽에 있는데, 떨어진 거리가 30여 리 쯤 된다. 『여지승람』에는 압해(壓海)라고 했다. 지금까지 정 정승<sup>35)</sup>의 묘가 남아 있다. 예전 선조이신 참의 정시윤 공께서 일찍이 재상경차관(災傷敬差官)으로 호남에 오셨다가 마침내 이 섬에 들어가 정승의 묘를 배알하였다. 뒤에 순천 도호부사가 되어 다시 이곳에 행차하였다. 이제 내가 바로 바라다보이는 거리에서 지나가면서도 제 뿌리가 되는 곳을 돌아볼 수 없었으니 이 때문에 슬퍼하였다.

翌日，己亥，朝陰。解纜至港口，遇大風。暴雨下注，回舟入港，激浪擺闔，幾乎傾覆。舟中之人，皆急杵擣心。僅泊舊步，還宿村家。余故押海人也。押海島在八琴島之西北，相去可三十餘里。輿地勝覽作壓海。尙有丁政丞墓在

35) 정 정승(丁政丞): 정 정승은 중국에서 건너온 압해 정씨의 시조 정덕성(丁德盛)을 가리킨다. 당 문종 때 대승상을 지냈으며 무종 때 압해도에 유배된 후 후손들이 이곳에 정착하였다고 전한다.

焉. 昔先祖參議公, 嘗以災傷敬差官至湖南, 遂入此島, 拜政丞之墓. 後爲順天都護, 再有此行. 今余行過莽蒼之地, 不能顧狐丘之地. 爲之惆悵.

## 2월 10일

경자일, 바람이 음산하게 불며 날이 개지 않았다. 이 때문에 팔금도에 머물렀다. 섬사람의 생활을 보니, 다만 낙제(絡蹄)를 잡는 것을 일로 삼는다. 낙제란 이름은 「여지승람」과 허준의 「동의보감」에 보인다. 낙제라는 것은 낙지이다. 팔초어(八梢魚), 즉 문어와 같은데 크기가 조금 작다. 그래서 작은 팔초어라고도 부른다. 썰물이 진 뒤에 팔을 뒤져 잡는다.

翌日, 庚子, 風噎不霽, 因留八琴島. 觀島人生理, 唯業捕絡蹄. 絡蹄之名, 見輿地勝覽. 及許浚東醫寶鑑. 絡蹄者, 章舉也. 如八梢魚而差小, 故亦名小八梢. 潮落之後, 搜於泥沙而得之.

## 2월 11일

신축일. 날씨 맑음. 미풍이 불다. 11일이다. 아침에 출발하여 30리를 가서 비금도(飛禽島)를 지났다. 「여지승람」에는 비이도(飛衣島)라 한다. 또 20리를 가서 관청도(觀靑島)<sup>36</sup>에 이르자 날이 어둑해졌다. 들으니 2월 6일 밤에 내가 고하도에 묵었을 때이다. 홍의도(紅衣島)<sup>37</sup>와 태사도(太師島)<sup>38</sup> 두 섬의 배가 송도(松島)<sup>39</sup> 앞쪽에 이르렀다가, 바람을 만나 표류하여 간 곳을 모른다고 한다. 그 위태롭기가 이와 같다. 비금도에는 큰 염전이 있어, 나주의

36) 관청도(觀靑島): 관청도는 오늘날 쾌속선이 기항하는 비금면 수대리 일대를 가리킨다.

37) 홍의도(紅衣島): 홍의도는 오늘날 신안군 흑산면에 속한 홍도(紅島)의 옛 이름이다.

38) 태사도(太師島): 태사도는 오늘날 신안군 흑산면에 속한 중태도(中苔島)를 가리킨다. 목포에서 남서쪽으로 약 120km 지점에 있으며, 중태도·하태도와 함께 태도군도를 이룬다.

39) 송도(松島): 관청도에서 10리라 했으니, 비금도 서쪽 끝에 있는 무인도로 추정된다.

여러 섬이 모두 공급해주기만을 바란다고 한다. 관청도는 큰 바다가 열리는 입구다. 예전에는 진정(津亭) 수십 호가 있었으나 지금은 단지 한 집만 남아 있다. 어떤 이는 관청도의 관청이 관청(官廳)이라고 한다. 고려 때 물길로 개경에 조회하는 자가 군산보(羣山堡)에서부터 길을 취해 이 섬에 이르러 바람을 기다렸으므로 늘 관청을 두었다. 이 때문에 이제껏 이렇게 부른다고 한다. 밤에 촌가에서 쉬는데 한밤중에 뱃사람이 나를 흔들어 깨우며 말했다. “순풍이 불니다.” 그래서 배에 올라 항구를 벗어나자 비로소 닦우는 소리가 들려 왔다. 서편을 바라보니 구름과 물이 가이없다. 지는 달이 바다에 걸려 가물가물 떨어질 듯한 것이 마치 병든 눈에 등불이 가물대는 것만 같았다. 10여 리를 가서 송도의 서편에 이르자 비로소 먼동이 터왔다.

翌日辛丑, 晴. 有微風. 十一日. 朝發行三十里, 歷飛禽島, 輿地勝覽作飛尔. 又行二十里, 至觀青島, 日已曛矣. 聞丙申之夜, 余宿高霞島之時. 紅衣太師二島船, 至松島之前, 被風漂轉, 不知去處. 其危懷如此. 飛禽島有大鹽場, 羅州諸島, 皆仰給焉. 觀青島開洋之口也, 舊有津亭數十戶, 今只一家存焉. 或云, 觀青者官廳也. 高麗時, 水路朝京者, 自羣山堡取路, 至此島, 候風, 常設官廳, 故至今名之云. 夜歇村家, 夜半舟人攪余起云: “有便風起.” 登船出港口, 始聞雞聲. 西望雲水無際, 落月挂海, 翳翳將墜, 如病眼殘燈. 行十餘里, 至松島之西, 天始曙矣.

## 2월 12일

임인일, 12일 맑음. 동틀 무렵 송도 앞바다에 이르렀다. 서남쪽을 멀리 바라보니 물과 하늘이 한 빛깔이었다. 뱃사람들이 모두 경건하게 목욕하고 성대하게 상을 차려 선왕에게 제사를 지내고 순조롭게 건너가기를 기도했다. 제사를 마치고는 밥을 먹고, 큰 깃발을 세워 북을 둥둥 치면서 배를 출발했다. 이날은 바람의 힘이 너무 약해 비록 돛을 걸기는 했어도 노 젓기

를 멈추지 않았다. 뱃사람들은 걱정이었지만 나는 즐거웠다. 흑산의 바다는  
 흑 1000리라 하고, 700리라라고도 한다. 『여지승람(輿地勝覽)』에는 물길로  
 900여 리라 했으니 이것이 믿을 만한 글이다. 하지만 눈을 비비며 서편을  
 바라보아도 흑산도는 보이지 않았는데, 안력이 미치지 못해서가 아니다. 북  
 극의 고도<sup>40)</sup>는 250리마다 1도씩 차이가 난다. 1000리라면 4도의 차이다.  
 이로써 미루어볼 때 대지 위의 물이 둥글게 감돌아 수백 리 바깥의 것은  
 건너다 볼 수가 없는 것이다. 한라산처럼 산꼭대기가 우뚝하게 곧장 허공  
 속으로 솟은 것이라면 수천 리 떨어진 곳에서도 볼 수가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둥근 물체는 가운데가 불쑥 솟아 서로를 가리기 때문이다.

반나절을 서쪽으로 가자 한바다에 이르렀다. 그제서야 푸른 산 한 줄기  
 가 보이는데, 희미하게 물에 잠긴 하늘에 나와 있다. 물어보니 바로 흑산  
 도였다. 이날은 날씨가 몹시 맑아 이곳에 이르러서도 마치 몽롱한 안개가  
 희미한 것 같음을 볼 수 있었지만, 좀 더 가까이 가야 비로소 볼 수 있다고  
 한다. 바다 가운데에 이르자 작은 섬이 있는데, 교맥도(蕎麥島)<sup>41)</sup>라 하였  
 다. 이곳 말로는 모밀섬이다. 돌레가 수백 보에 지나지 않지만 바위 암초가  
 검과 같아서 감히 가까이 다가가지 못한다. 이곳에 이르러 또 선왕에게 제  
 사를 올리고, 제사를 마치고는 점심밥을 먹었다.

明日壬寅 十二日, 晴. 黎明至松島前洋. 西南眺望, 水天一色. 舟人皆虔  
 沐盛饌, 祭船王祈利涉也. 祭畢點飯. 建大旗, 打鼓發船. 是日風力微弱, 雖  
 則舉幔, 不廢搖櫓. 舟人所憂, 余所欣也. 黑山之洋, 或云千里, 或云七百里.  
 輿地勝覽云, 水路九百餘里, 此信文也. 然拭眼西望, 不見黑山, 非眼力不

40) 북극의 고도: 원문의 북극출지(北極出地)는 북극고도(北極高度)라고도 한다. 지면에  
 서 북극성을 바라본 각도, 즉 북극성에서 오는 별빛과 지면이 이루는 각도를 말하는데,  
 오늘날 위도의 개념과 비슷하다.

41) 교맥도(蕎麥島): 교맥도는 흑산면 영산리에 있는 무인도로 현재는 매물도로 부른다.  
 섬의 생긴 모양이 메밀을 닮았대서 얻은 명칭이다.



及也. 北極出地, 二百五十里, 差一度, 則千里差四度. 以此推之, 凡大地之上, 水形圓轉, 數百里之外, 不能瞭望. 若山角峯高, 直入空際, 如漢拏山者, 數千里可見. 自非然者, 圓體中隆, 彼此相隱也.

半日西行, 正至中洋. 始見青山一髮, 微出鵲沒之天, 問之則黑山也. 是日清澈, 至此得見若濛靄迷昧. 須益近前, 始可見也. 正至中洋, 有小島. 名曰蕎麥苦 方言毛密苦, 周不過數百步. 石焦如劍, 不敢近前. 至此又祭船王, 祭畢饒午.

막 밥을 먹으려는데 갑자기 큰 소리가 바다 가운데에서 일어나니 하늘을 쪼개고 땅을 찢는 듯하였다. 뱃사공이 수저를 놓칠 정도였다. 나 또한 크게 놀라 낮이 나갈 지경이었다. 물어보니 고래의 울음소리라고 한다. 이때 고래 다섯 마리가 나와 노닐며 멀리서 거슬러 왔다. 그 중 한 마리가 하늘을 향해 물을 뿜는데, 그 형세가 마치 흰 무지개<sup>42)</sup> 같고, 높이는 백 길 남짓이었다. 처음 입에서 물을 뿜자 물기둥이 하늘 끝까지 떠받치는 것 같았다. 하지만 도리어 옥 같은 눈이 땅 위로 떨어졌다. 햇빛에 반사되어 비치자 광채가 현란하였으니, 참으로 기이한 광경이었다. 물을 뿜고는 소리치고, 소리치다가 물을 뿜으니 이와 같은 것이 한 식경이나 되었다. **대략 한 차례 물을 뿜고 한 차례 소리치는 것이 4~5차례 이상이었다.** 그 소리는 마치 짐채만큼 커서, 쇧덩이를 내려치는 듯하였다. 짐채만큼 크다보니 무쇠 쟁반에서 소리가 나는 것 같았다. 급하고 빠르기가 우레 소리보다 더했다. 다만 우레 소리는 우르릉거리는데 반해, 고래의 소리는 찌렁거렸다.

方飯, 忽有大聲起海中, 劈天裂地. 舩工喪其匕筯. 余亦大驚魄遁. 問之則鯨吼也. 時有五鯨出游, 遠遠逆來. 其一仰天噴水, 勢如白虹. 高可百丈. 始

42) 흰 무지개: 원문의 백홍(白虹)은 보통은 태양 둘레에 생기는 백색의 호(弧)를 말하는데, 여기서는 폭포가 되어 떨어지는 물의 흰색 포말을 말한다.

出口玉。柱擎天屈。而反瓊雪迸地，日色映射，光彩絢纈，洵奇觀也。既噴而吼，既吼而噴，如是者食頃。大約一噴一吼，不下四五十聲。其聲如以屋樣大之鐵鉦下擊。屋樣大之，鐵盤聲之，急疾浮於震霆，但雷聲碎訇然，鯨聲鏗錚然也。

고래 두 마리는 배 왼편에 있었는데, 교맥도를 스치며 동쪽으로 갔다. 오른쪽에 있던 고래 세 마리는 송도(松島)를 바라보며 동쪽으로 갔다. 소리친 것은 왼편의 고래였다. 물을 뿜을 때는 고개를 치켜 등마루를 솟구치니, 마치 물건을 운반하는 큰 배와 같았다. 수면에서 몸을 뒤집자 검은 거죽이 몹시 어두웠고 비린내가 확 끼쳐 왔다. 겁이 나서 가까이 할 수가 없었다. 몇 리를 더 가고 나서야 겨우 기운을 펴고 숨을 쉴 수 있었다.

二鯨在船左，掠薺島而東。三鯨在船右，望松島而東。其吼者左鯨也。噴水之時，昂首聳脊，如輪漕巨舶。覆於水面，黑皮陰慘，腥氣逼射。凜乎其不可近。相過數里，始得舒氣而息矣。

또 서쪽으로 수 백리를 가자, 바람의 힘이 차츰 팽팽해져 신발 무늬<sup>43)</sup>가 조금씩 거칠어졌다. 소장공(蘇長公)의 다음 시<sup>44)</sup>를 외워 보았다.

개인 구름 밝은 달빛 그 누가 꾸몄던고	雲散月明誰點綴
하늘 모습 바다 빛깔 본래부터 해맑다네.	天容海色本澄清
남쪽 변방 죽을 뻔 함 내 한하지 않으리라	九死南荒吾不恨

43) 신발 무늬: 소식의 「유금산사(游金山寺)」시에 “넓은 물결 산들바람 신발 무늬 섬세한데, 반공의 붉은 노을 고기꼬리 붉은 듯해.(微風萬頃靴文細，丹霞半空魚尾赤.)”라 한 데서 따왔다. 바람이 불어 수면에 생긴 무늬가 신발 무늬와 비슷하다는 의미이다.

44) 소장공(蘇長公)의 시: 다음은 소식(蘇軾)의 「유월이십일야도해(六月二十日夜渡海)」이다.

이번 노닐 기막히기 평생의 으뜸일세.

茲遊奇絕冠平生

날이 늦은 뒤에야 흑산도에 점점 가까워졌다. 속으로 기쁘기가 마치 봉래(蓬萊)와 방장(方丈)<sup>45)</sup>에 들어가는 것만 같았지만, 혹 바람에 끌려 멀어질까 걱정이 되었다. 영산도(影山島)<sup>46)</sup>에 이르자 바람이 더욱 세졌다. 5리를 더 가서 흑산도에 도착했다. 사미촌(沙尾村)<sup>47)</sup>의 거처에서 중부(仲父)께 절을 올렸다.

又西行數百里。風力稍緊，靴文漸亂，誦蘇長公詩曰。“雲山月明誰點綴，天容海色本澄清，九死南荒吾不恨，茲遊奇絕冠平生。”日既晚黑山漸近，中心歡喜，如入蓬萊方丈，或恐風引而却之也。至影山島，風益緊。行五里抵黑山。拜仲父于沙尾村居。

## 2월 13일

계묘일. 모습을 자세히 우러러 뵈고서 학초를 잃은 슬픔과 아픔<sup>48)</sup>을 두루 말씀드렸다. 신유년(1801)으로부터 9년 사이에 집안 식구가 죽고 태어난 것과 조야(朝野)의 지위가 오르고 몰락한 것을 물으시는 대로 대답을

45) 봉래(蓬萊)와 방장(方丈): 봉래(蓬萊)·방장(方丈)은 영주(瀛洲)와 함께 발해(渤海)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삼신산(三神山)으로, 여기에는 신선들이 살며 불사약(不死藥)이 있고 새와 짐승이 모두 희며, 궁궐이 황금으로 지어졌다고 한다. 금강산과 지리산을 가리키기도 한다.

46) 영산도(影山島): 관청도에서 곧장 사미촌에 도착했다면 흑산도 동쪽에 위치한 영산도로 보인다. 영산도는 신안군 흑산면에 딸린 섬인데, 흑산도 동쪽 해안에서 4km 가량 떨어진 해상에 있다.

47) 사미촌(沙尾村): 사미촌은 오늘날 흑산도 사리 마을을 말한다. 정약전의 사촌서당일 이곳에 있었다.

48) 슬픔과 아픔: 원문의 미산(悲酸)은 비도산고(悲悼酸苦)의 줄임말로 손아랫사람을 여인 슬픔을 뜻하는 표현. 여기서는 정학초가 갑작스런 죽음으로 오지 못하고 자신이 대신 오게 되었다는 의미이다.

올려드렸다. 어부가 무릉도원에 들어가 한나라 적 이야기를 하는 것과 다를 바 없었다.

흑산도에는 큰 섬과 작은 섬이 있다. 작은 것을 우이도(牛耳島)<sup>49</sup>)라 하는데 방언에는 소개(小開, 소귀)라 하고, 『여지승람(輿地勝覽)』에는 우개도(牛開島)라 한다. 보장(堡將)<sup>50</sup>)은 언제나 우이도에 머물다가 다만 여름에만 한 차례 큰 섬으로 와서 보리를 거두고 고혈을 짜서 돌아간다. 귀양 온 사람이 있으면 가시울로 위리안치한 자만 우이도에 살게 하고, 그 나머지는 자기가 선택한 대로 들어준다. 중부께서도 처음에는 우이도에 계시다가, 집과 곡식 마련이 불편한지라 을축년(1805) 여름에 큰 섬으로 이주하셨다. 처음에는 보촌(堡村)<sup>51</sup>)에 사시다가 얼마 안 있어 사미촌으로 옮기셨다.

十三日, 癸卯, 詳瞻顏髮, 歷叙悲酸. 自辛酉九年之間, 骨肉死生, 朝野升沈. 隨問仰答, 不異漁子入桃源話漢事也. 黑山有大小二島, 其小者曰牛耳島. 方言曰小開. 輿地勝覽曰牛開島. 堡將常住牛耳, 唯夏月一至大島, 收麥浚膏而去. 其有遷謫者, 唯圍籬荐棘者, 安插于牛耳. 其餘聽其自擇. 仲父亦初居牛耳, 緣館穀不便, 於乙丑夏, 移住大島. 初接堡村, 尋移沙尾村.

송나라 때 서공은 『사고려록(使高麗錄)』<sup>52</sup>)에서 이렇게 말했다. “흑산도

49) 우이도(牛耳島): 우이도는 신안군 도초면에 딸린 27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우이군도의 주도(主島)이다. 섬의 서쪽 양단에 도출된 반도가 소의 귀 모양과 비슷하여 우이라 는 이름을 얻었다. 예전에는 흑산진에 속해있어 소흑산도라고도 불렸다.

50) 보장(堡將): 1676년에 본도인 우이도와 흑산도에 각각 관해(官廩)를 설치하여 우수영 소속 별장 1인씩을 두었다.

51) 보촌(堡村): 보촌은 흑산진의 진보(鎭堡)가 있던 진리(鎭里) 마을을 가리킨다. 이 집이 소교 이행목의 집일 경우, 후손 이영일 씨에 따르면 그 위치는 현재 진리마을 초등학교 서쪽 담장 너머로 추정된다.

52) 서공(徐兢): 송나라 서공(1091~1153)의 『선화봉사고려도경(宣和奉使高麗圖經)』을 말한다. 1123년에 고려에 사신으로 온 서공이 한 달간 개경에 머물면서 그 견문을 그림과 함께 정리한 보고서이다. 위 대목은 같은 책 권35, 해도 2 「흑산」 조에 보인다.

는 백산도(白山島)<sup>53</sup>의 동남쪽에 있다. 나라 안에서 큰 죄를 지어 죽음을 면한 자가 이곳으로 많이들 유배온다.” 여기서 이곳은 큰 섬을 가리킨다. 흑산도는 길이가 30여 리이고 너비는 10리에 지나지 않는다.

온 산이 모두 검은 돌인데 그 빛깔은 옷칠한 것 같아 한 점의 흰 자갈도 없다. 땅 깊은 곳에 들어가 있는 것에 흑 벼루감이 있는데 흡주(歙州)에서 나는 것만 못지않다. 일찍이 미불(米芾)의 『연사(硯史)』를 보니 이렇게 말하였다. “흡주연(歙州硯)<sup>54</sup>은 고운 비단 무늬에 별이 없는 것을 상품으로 친다. 또한 자금빛으로 거위 눈알 무늬가 있는 것과 금사(金絲) 무늬가 있는 것을 모두 훌륭한 제품으로 일컫는다.” 지금 흑산의 벼루에도 이러한 종류가 있다. 다만 이곳 사람들이 어리석어 쓸 줄을 모르니 몹시 애석하다. 어진 이와 재주 있는 이가 궁벽한 고장에서 나서 늙는 동안 조정에 천거되어 발탁되지 못해 초목과 더불어 썩고 마는 것이 흑산도의 벼루와 다를 것이 없다.

宋徐兢使高麗錄曰, “黑山在白山之東南, 國中大罪, 得貸死者, 多流竄於此.” 此蓋指大島也. 黑山長三十餘里, 廣不過十里.

全山皆黑石, 其色如漆, 無一點白礫. 其入地深者, 或有硯材, 不讓歙產. 嘗見米芾硯史云, “歙州硯, 以細羅紋無星者, 爲上. 亦有紫金斑鵝眼紋金絲紋者, 皆稱佳品.” 今黑山之硯, 亦有此類. 特因土人貨買, 不知採用, 甚可惜也. 賢人才子, 生老僻鄉, 不見薦拔, 與艸木同腐者, 與黑山之硯, 無以異也.

53) 백산도(白山島): 흑산도에서 서북쪽으로 1리 거리라고 한 것으로 보아 대장도를 가리키는 듯하다.

54) 흡주연(歙州硯): 이것은 강서성(江西省) 무원현(婺源縣) 흡계(歙溪)에서 나는 유명한 벼루로 무원이 옛날 흡주(歙州)에 속해 있어 흡주연 또는 흡연이라고 한다. 무원연(婺源硯), 용미연(龍尾硯)이라고도 한다. 석질이 매우 단단한데다 매끄럽고 조밀해서 물을 빨아들이지 않아 단연(端硯)과 함께 벼루의 명품으로 꼽는다. 이에 관한 기록은 『연사(硯史)』, 『흡주연보(歙州硯譜)』, 『흡연설(歙硯說)』 등에 자세히 보인다.

땅에는 오곡이 없다. 오직 기장과 보리를 이따금 자투리 땅에 심곤 한다. 또한 여러 가지 과일도 없다. 지난해에 표류선 한 척이 배에 온통 함소(含消), 즉 배[梨]를 가득 실었는데 이곳 사람들이 가져다가 이를 심었더니 그 품질이 자못 훌륭했다. 다만 접을 붙이지 않아서 그 성품을 다 이끌어 내지는 못하였으니 몹시 애석하다. 산다(山茶)와 석류가 있다. **방언에 산다를 동백이라 한다.** 온산을 메우고 골짜기를 덮은 것은 모두 동청(冬靑), 즉 사철나무이다.<sup>55)</sup> 새는 다만 까마귀와 술개<sup>56)</sup>, 닭과 참새가 있을 뿐 나머지 다른 것은 없다. 제비는 모두 산에 등지를 튼다. 이따금씩 인가로 들어와 몇 마디 재잘대는 가버리니 참으로 기이하다 할 만하다. 털 짐승은 개와 소, 고양이와 쥐가 있을 뿐이다. 나머지는 다 없다.

중부께 글을 배우던 자가 당나라의 소시(小詩)를 배우다가 이렇게 물었다.

“말 위에서 한식을 만나고 보니(馬上逢寒食).<sup>57)</sup>”라는 시에서, 말은 대체 어떤 동물인가요?”

중부께서 말씀하셨다.

“말은 소와 비슷하지만 뿔이 없고 발굽은 둥글며 갈기는 길다. 타고 다니기만 하고 발 갈지는 않는 것이 이것이다.”

내 생각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낙타와 사자와 코끼리를 본 적이 없어서 낙타를 두고 말 등에 종기가 났다고 하고 코끼리를 보고 소의 코를 잡아당겼다고 하는 것과 오십보백보이니 어찌 웃을 수 있겠는가.<sup>58)</sup> 이곳의 풍속

55) 사철나무: 구실갯밤나무 또는 후박나무로 추정된다.

56) 까마귀와 술개: 겨울 철새인 까마귀가 머물러 있을 시기이고, 술개는 흰꼬리 수리로 추정된다.

57) 말 위에서 한식을 만나고 보니(馬上逢寒食): 당(唐)나라 송지문(宋之間)의 『도중한식(途中寒食)』의 첫 두 구절이다. “말 위에서 한식을 만나고 보니 근심 속에 저무는 봄이로구나.(馬上逢寒食, 愁中屬暮春.)”

58) 우리나라 사람들이 …… 어찌 웃을 수 있겠는가.: 건문이 적어 처음 보는 사물을 괴이하게 여기는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이혹론(理惑論)』에 “속담에 ‘건문이 적으면 괴이

은 이제껏 감히 개를 집에서 기르지 못한다. 한차례 국을 끓여 올렸더니 요망한 말이 들끓었다. 이 때문에 개를 집에서 기르지 않아 모두 산짐승이 되었다. 매년 날이 캄캄해진 뒤에는 못 개들이 몰래 마을을 다니는데 물고기 뼈와 내장을 먹으려는 것이다. 「내칙」에 “물고기는 내장을 제거한다.”고 하였다. 도둑질을 경계하는 바가 없는데도 오히려 다시금 으르렁거리며 짖는다. 이것이 내가 「산견(山犬)」 시<sup>59</sup>)를 지은 까닭이다. 우이도는 관청도 남쪽에 있다. 바다 건너 100리에 불과하니 든바다(內洋)의 지역이다.

地無五穀，惟稷與麥。往往有一稜之種。亦無諸果。往年有一漂船，全載含消。土人取而種之，其頗佳，但不栽接，未盡其性，殊可惜也。有山茶石榴。方言山茶曰冬柏。漫山被谷，都是冬青。羽族唯有烏鳶雞雀，餘皆無之。鷲皆山巢，時入人家，喃喃數語而去，洵可異也。毛族惟有犬牛貓鼠，餘皆無之。從仲父學書者，受唐小詩，問馬上逢寒食，馬是何物。仲父語之曰，馬似牛而無角，圓蹄長鬣，騎而不耕者，是也。余惟我邦之人，不見橐駝獅象。馬腫背而牛曳鼻，其間五十步也。何哂焉。土俗從來不敢坐犬。一薦羹獻，託言沸騰。故犬不家畜，皆爲山獸。每於昏黑之後，羣犬潛行村落，求食鯁乙，內則云漁去乙。無所警盜，猶復猜吠。此余所以有山犬詩也。牛耳島在觀青島之南，越海不過百里，內洋之地也。

## 2월 15일

15일, 을사일. 황시(皇尸)<sup>60</sup>)의 뜻에 대해 들었다. 아버님이 지으신 「시변(尸變)」의 뜻과 더불어 조금 차이가 있었다.<sup>61)</sup> 우이도 사람 문순득이라

---

한 것이 많아 낙타를 보고 말 등에 종기가 났다고 말한다.(諺云，少所見，多所怪，睹駝駝，言馬腫背.)”고 하였다.

59) 「산견(山犬)」 시: 정학유의 문집 『운포유고(耘圃遺稿)』 권3에 실린 「현산잡시」 중 제 4수를 가리킨다.

60) 황시(皇尸): 황시는 임금을 표상한 시동(尸童)을 말한 것으로, 군시(君尸)의 존칭이다.

는 이가 신유년(1801) 겨울에 태사도로 가다가 바람을 맞아 표류하여 유구국(流求國, 오키나와)에 도착했다. 유구에서 풀려나 복건으로 보내졌는데, 또 표류하여 여송국(呂宋國, 필리핀)에 이르렀다. 안남(安南, 베트남)으로 가는 길을 따라 광동과 오문(甌門, 마카오)을 거쳐, 마침내 남경에서 북경으로 올라가 의주를 거쳐 우이도로 돌아올 수 있었다. 그 기간은 3년에 지나지 않는데, 바람에 쓸려 표류한 이래로 널리 유람한 장대함이 이같은 경우가 없었다.

十五日乙巳, 聞皇尸之義, 與家君所作尸變之義, 少有不同. 牛耳島人文旬得者, 辛酉冬, 往太師島, 被風漂到流求國. 自流求解送福建, 又漂至呂宋國. 取道安南, 由廣東甌門, 遂自南京, 上之北京, 傳之義州, 得還牛耳. 其間不過三年, 自有漂風以來, 歷覽之壯, 未有倫也.

이에 앞서 신유년(1801) 가을에 표류선 한 척이 제주에 이르렀다. 다섯 사람이 물을 길기 위해 육지에 내렸다. 우리나라 사람이 깃발을 들고 나팔을 불자 배가 놀라서 달아나는 바람에 다섯 사람만 홀로 낙오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요동으로 놓아 보내니, 요동을 다스리는 관리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알 수 없다며 우리나라로 되돌려 보냈다. 한양에서는 다시 제주로 돌려보내 머물게 하였다. 그 사람들은 모두 피부색이 검고 단추를 채운 옷을 입고 있었다. 신분이 높은 자는 머리를 땅았고, 입으로 언제나 ‘마가오(馬哥奧)’라는 세 글자를 외었는데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다.

先是辛酉之秋, 有一漂船至濟州, 有五人下陸汲水. 我人舉旗吹角, 舟驚而走, 五人獨落. 自我邦, 解送遼東, 管遼東者, 謂不知何國人, 還送我邦.

61) 시변(尸變): 다산이 별도로 『시변』이란 글을 남긴 것은 현재 전하지 않는다. 다만 『다산시문집』 권 10에 수록된 『원무(原舞)』에 ‘황시’에 관한 한 차례 언급이 보일 뿐이다. 현재의 글만으로는 전후 맥락을 가늠하기가 어렵다.



自漢陽還送濟州安置. 其人皆黑身對襟. 其貴者編髮, 口中常念馬哥奧三字, 不省何意.

문순득이 일찍이 나주성에서 이 다섯 사람을 보았었다. 그러다가 광동에 도착하여 그들의 방언을 들어보니 이른바 ‘마가오’라는 것은 오문의 이름이었다. 안남과 여송 사람들이 모두 오문으로 모여들어 조사하여 문순득이 사실은 조선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 이때 몇 사람들이 시끄럽게 떠들고 무리지어 욕을 하며 “약방(藥房) 사람은 나쁘다.”고 말했다. ‘약방’이라는 것은 여송의 방언으로 조선을 두고 약방이라 하였다.<sup>62)</sup> 문순득이 그들의 피부색이 검고 단추 옷을 입고 있으며, 신분이 높은 자가 머리를 땀은 것이 지난번 자기가 본 다섯 사람과 서로 같은 것을 보고 비로소 다섯 사람이 여송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旬得嘗於羅州城中, 見此五人. 及至廣東, 聞其方言. 所謂馬哥奧者, 嚮門之稱也. 安南呂宋之人, 皆聚嚮門, 查知旬得實係朝鮮人, 於是羣譟衆罵曰: “藥房人不好.” 藥房者, 呂宋方言, 朝鮮曰藥房也. 旬得見其黑身對襟, 貴者編髮, 與曩所見五人者相同, 始知五人係是呂宋人.

그들이 ‘마가오’라고 말했던 것은 마카오에 가기만 하면 제 몸이 문득 살 수 있음을 말한 것이었다. 문순득이 한양에 도착해서 이 같은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였으나 조정에서는 이를 믿지 않았다. 연전에 유구 사람이 제주도에 표류해 왔을 때 다섯 명을 내보이니 과연 여송 사람이었다. 유구인들에게 그들을 배에 싣고 돌아가게 하려 했지만 유구인들이 사양하였다.

62) 약방(藥房): 약방은 실제로는 조선의 별칭이 아니라 일본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포르투갈어로 ‘Japan’을 그들 발음으로 ‘야뽕’으로 읽기 때문이다. 당시 이들이 제주도를 일본으로 오인했음을 알 수 있다. 이 내용은 정약전이 문순득의 구술을 받아 정리한 『표해시말(漂海始末)』에도 나온다.

그들 중 한 사람은 제주에서 죽었고 나머지 넷은 지금까지 살아 있는데, 짚신을 짜서 먹고 산다. 문순득이 여송 사람들이 자신을 잘 대접해 준 은혜를 고맙게 여겨 늘 이들을 위해 관에다 알리려 하였지만 또한 능히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其念馬哥奧者，謂但至馬哥奧，身便得活也。既至漢陽悉陳其狀，廟堂莫之信也。年前流求人漂到濟州，出示五人，果呂宋人也。使之載還，流求人辭焉。其一死于濟州，其四尚存，織芒屨以糊口。旬得感念呂宋款接之恩，常欲爲此人申官，亦未能焉。

## 2월 16일

병오. 수진본(褻珍本) 관화(官話)<sup>63)</sup> 한 권을 얻었다. 지난해 겨울 12월에 표류선 한 척이 흑산도의 장섬항(長苔港)<sup>64)</sup>에 왔다가, 암초에 부딪쳐 배가 부서진 일이 있었다. 다만 두 사람이 뱃머리에 서서 짹짹 빌며 목숨을 구걸하더니 몸을 던져 물으로 올라오려다가 모두 바위에 부딪쳐서 죽었다. 배에 실려 있던 감초는 모두 바닷물에 젖어져 쓸 수가 없었다. 마을 아이가 그들의 주머니를 뒤져서 책 한 권을 얻었다.

책의 첫머리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용정 6년(1728) 11월 21일, 내각에서 화석(和碩) 이친왕(怡親王) 등에게 교부하여 삼가 새로 뽑힌 지현(知縣) 풍우기(馮又基)의 보고에 따라 황제께 아뢰입니다. 신이 삼가 황제의 유시를 읽어 보니 ‘북건과 광동 사람들은 관화(官話)를 알지 못하는 자가 많으므로 지방에서 훈도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러 생각건대, 황상께서 헤아려 살피심이 주도면밀하사

63) 수진본(袖珍本): 수진본은 소매 속에 넣고 다닐 수 있게 만든 작은 휴대용 책자를 말한다. 관화(官話)는 북경어 회화책으로 광동성 사람들이 북경어로 대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회화의 용례를 적어 둔 책이다.

64) 장섬항(長苔港): 장도로 추정된다. 다만 장도에는 백사장이 없다.

조금도 비추지 않음이 없어, 멀리 치우친 바닷가 사람조차도 한 가지 도로 같은 풍속의 성대함을 다하고자 하셨습니다. 신은 어리석어 각 지방의 언어가 같지 않더라도 글자의 음만은 사해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방 말에 따라 책을 읽어 글자 음이 익숙해지고 나면, 비록 관화를 배운다 해도 또한 말을 꺼내기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청컨대 각 성의 학교에 신칙하시어 책을 읽을 때 다시는 지방 말을 쓰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글자 음이 바로잡히면 관화는 절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관리의 명부에 이름이 올라 관리와 백성이 이야기를 나누더라도 피차간에 의미가 잘 통해서 통역하는 자가 농간을 부리는 일이 없게 될 것입니다.<sup>65)</sup> 예부(禮部)로 하여금 광동 순무에게 자문을 내려 『남북정음관화직해(南北正音官話直解)』 1권을 간행하게 하소서.”

十六日, 丙午. 得褒珍官話一卷. 前年冬十二月. 有一漂船到黑山島長苦港. 觸焦船破. 唯有二人立船頭, 按摩乞命. 攬身下陸, 皆觸石而死. 所載甘艸, 皆醃鹵不可用. 村童搜其囊中, 得書一卷. 卷端題曰: “雍正六年十一月二十一日, 內閣交出和碩怡親王等, 謹奏據侯選知縣馮又基奏稱. 臣, 伏讀上諭, 福建廣東人多不諳官話, 著地方訓導, 仰見皇上睿慮周詳, 無微不至, 欲令僻遠海疆, 共臻一道同風之盛也. 臣愚以爲五方鄉語不同, 而字音則四海爲一, 祇因鄉語讀書, 以致字音讀慣後, 雖學習官話, 亦覺話頭難轉. 請飭各省鄉塾, 讀書不得復用鄉語, 則字音既正, 官話自清. 及登仕籍, 官民說話, 彼此通曉, 胥役無從舞弊等語. 令禮部咨廣東巡撫, 刻南北正音官話直解一卷.”

갈래별로 나눠 그 음을 번역하였는데 예를 들어 ‘황혼’은 ‘광곤’이라 하고, ‘창천’을 ‘창침’, ‘호박’은 ‘고박’이라 하고, ‘황금’을 ‘광근’이라 하는 따

65) 농간을 부리는 일이 없게 될 것입니다. : 원문의 무폐(舞幣)는 무폐(舞幣)로도 쓰며 농간을 부려 사적인 이득을 취하는 것을 말한다.

위가 모두 10쪽이요,<sup>66)</sup> 또 문답이 있는 대화로 『노걸대(老乞大)』나 『박통사(朴通事)』<sup>67)</sup>와 같은 것이 몇 쪽이었다. 또 사물의 이름을 풀이해 읊긴 것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 수염 많은 사람을 호자(鬍子)라 하고, 맹인을 할자(瞎子)라 한 따위가 모두 8, 9쪽이어서 또한 자못 볼 만하였다.

分門別部翻譯其音, 如黃昏曰狂坤, 蒼天曰倉添, 琥珀曰苦怕, 黃金曰狂斤之類, 共十葉. 又有問答話頭如老乞大朴通事者數葉. 又有物名譯解, 鬚人曰鬍子, 盲人曰瞎子之類. 共八九葉, 頗亦可觀.

애석하게도 그 내버려진 유해를 거두어 묻어주는 이가 아무도 없어 지금껏 백사장에 그대로 놓여 있으니 몹시 근심할 만하다. 대개 표류선이 섬에 정박하면 지방관에게 알려져 검사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관리와 토교(土校)가 어민을 가혹하게 침탈하여 걸핏하면 비용이 수천여 궤미에 이르므로 고기 잡는 어부와 떠돌이 백성이 반드시 유랑민이 되고 만다. 이 때문에 숨겨두고 소문내지 않는다. 또 손을 대서 묻어주었다가는 모진 심문을 받아야 하므로 파리와 모기떼에게 내버려두게 되는 것이다. 죄는 고을 수령이 용렬하고 어두워서 아전들이 제멋대로 구는 것을 살피지 못한 데 있으니, 섬의 백성들에게 죄를 묻어서는 안 된다. 어찌 이뿐이겠는가. 무릇 바다 섬에서는 때때로 주먹질하여 싸우다가 살상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문득 모두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숨겨 감추곤 한다. 이 또한 아전과 장교의 수탈 때문이지 섬 백성의 죄가 아니다.

惜其委貳, 無人收埋, 尙暴沙場, 甚可愍也. 蓋有漂船泊島, 報知地方官查

66) 황혼은 …… 10쪽이요: 이 구절은 관화의 음을 광동어로 읽을 때의 발음으로 표기한 예를 보인 것이다.

67) 『노걸대(老乞大)』, 『박통사(朴通事)』: 노걸대와 박통사는 모두 조선시대의 중국어 학습서이다. 성종 때 최세진이 쓴 것을 1677년 권대훈, 박세화 등이 다시 고증하여 수정, 간행하였다.

檢. 則官吏土校, 侵漁剝割. 動至數千餘緡, 漁蠻雁戶, 必成流勾, 故匿不以聞. 又恐著手埋葬偏被告訊, 所以委之蠅蚋也. 罪在令長庸闇, 不察豪橫, 島氓不可罪也. 豈惟是也. 凡海島之中, 時有毆鬪殺傷, 輒皆和平隱匿, 亦由吏校剝割, 非島氓之罪也.

## 2월 18일

무신일, 중부를 모시고 흑산도의 꼭대기<sup>68)</sup>에 올랐다. 위에 너럭바위<sup>69)</sup>가 있는데 수백 명이 앉을 만하였다. 바위가 병풍처럼 둘러 있어 이름하야 홍석(鴻石)이라 한다. 맑고 찬 샘물이 바위틈에서 나온다. 산꽃이 활짝 피었으니 모두 진달래였다. 술을 내오고 회를 치게 하여 답답한 회포를 푸니 참으로 즐거웠다. 날씨가 흐리지 않으면 제주를 볼 수 있다. 하지만 만약 제주가 보인다면 그것은 바로 비가 올 조짐이다. 기운이 올라가 반사되어 비친 것이니, 그 이치가 그러하다.

十八日戊申, 陪仲父, 登黑山絕頂. 上有盤石, 可坐數百人. 繞以石屏, 名之曰鴻石. 水泉清冽, 出於巖竇. 山花盛開, 皆杜鵑也. 命酒斫鱸, 抒寫幽鬱, 洵足樂也. 若無蒙靄, 可見濟州, 然若見濟州, 卽爲雨徵. 昇氣映射, 其理然也.

홍의도(紅衣島)는 흑산도의 서쪽으로 10여 리에 있고, 가가도(可佳島)<sup>70)</sup>는 흑산도에서 서남쪽으로 4~500리에 있다. 가가도의 백성은 흑산도를 이룬 큰 성읍처럼 보아 그 성대한 문물을 우러러 흠모한다. 흑산도의 백성들

68) 흑산도의 꼭대기: 문암산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69) 너럭바위: 너럭바위는 사리의 사촌서당 건너편 뒷산인 문암산 줄기의 너른 암반을 가리킨다. 문암산 남쪽 능선에 넓은 바위가 두 군데 있는데, 심리 마을이 내려다 보이는 쪽은 '매마당'이라 하고, 그 아래 쪽에 사리 마을이 내려다 보이는 쪽에도 반석이 있다. 글 속의 너럭바위는 매마당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70) 가가도(可佳島): 가가도는 가거도를 말한다.

은 가가도를 마치 나주의 이속들이 흑산도를 보듯 한다. 관청 바깥에 머물게 하며 종처럼 대우하고 당에 올라 절하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았다. 그들의 어리석고 순박함을 이용해 제멋대로 착취하곤 한다.

紅衣島在黑山之西十餘里。可佳島在黑山西南四五百里。可佳之民以黑山，爲名城大邑，聲明文物，仰望歎慕。黑山之民視可佳，猶羅州之吏視黑山。留作外府，待以氓隸，不許上堂禮拜，利其愚朴，浚削惟意。

태사도(太師島)는 흑산도의 남쪽 100여 리에 있다. 문물은 가가도보다 는 조금 나아 보이나 흑산도의 백성들은 오히려 그들을 업신여겨 이승(夷丞)<sup>71)</sup>이라고 부른다. 지난해 가을에 태사도의 백성들이 흑산도에 왔다가 처음으로 장기(棋)를 배워 돌아가서 퍼뜨렸다. 흑산도 사람들이 이를 듣고 크게 노하여, “교활한 오랑캐가 우리를 흉내 내려 하니, 가서 때려 부숴 감히 다시는 익히지 못하게 해야겠다.”고 말했다. 만재도(滿載島)<sup>72)</sup>는 흑산도 서쪽 수백 리에 있다. 이곳은 해남에 거주하고 있는 고 이조판서 이상(李尙毅)<sup>73)</sup> 공의 후손이라는 자가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

太師島在黑山之南百餘里。文物視可佳稍長。然黑山之民，猶然侮之，號曰夷丞。去年秋夷丞之民，到黑山始學象棋，歸而播之。黑山人聞之大怒曰：“點虜欲效我曹，往而毀之，令母敢復習焉。”滿載島在黑山之西數百里。即故吏曹判書李公尙毅後孫居海南者，所占斷也。

71) 이승(夷丞): 이승은 업신여겨 부르는 호칭으로 오랑캐의 하인이라는 정도의 의미이다.

72) 만재도(滿載島): 만재도는 신안군 흑산면에 딸린 섬이다.

73) 이상(李尙毅): 이상(1560-1624)는 본관은 여흥(驪興), 자는 이원(而遠), 호는 소릉(少陵)이다. 임진왜란 당시 검찰사(檢察使)로 선조를 호종했다. 1597년 진위사(陳慰使)의 서장관(書狀官)으로 명나라에 다녀왔다. 이후 도승지, 이조판서 등을 거쳤다. 사후에 선조를 호종한 공으로 영의정에 추증되었다. 시호는 익헌(翼獻)이다.

## 2월 19일

19일에 중부를 모시고 나사동(螺螄洞)<sup>74</sup> 방언으로는 소라굴이다. 으로 놀러갔다. 서공의 『사고려록(使高麗錄)』에, “흑산은 처음 바라보면 지극히 높고 가팔라서 산세가 여러 겹으로 겹쳐져 있다. 앞쪽에 작은 봉우리가 있는데 가운데가 비어 마치 동굴 같다. 양쪽 사이에 시내가 있어 배를 감출 만 하다.”고 하였다. 이것이 바로 나사동을 두고 한 말이다. 나사동은 사촌(沙村)을 막아주는 문이 된다. 바위 구멍이 움푹 패여 형세가 마치 무지개 같은데 높이는 4~5장 가량 된다. 처음 들어가면 웅성(甕城)과 같고 더 들어가면 음삼하고 킁킁해서 찬 기운이 뼈에 저민다. 심여 걸음을 가면 바위가 또 우뚝하게 열리면서 골짜기가 환해지고 해와 달이 드러난다. 고개를 내밀어 굽어보면 어지러운 바위가 답쌓였고 성난 물결이 들이쳐서 우르릉 거리다가 바람과 우레가 때려 대는 것만 같았다. 내 생각에 이발(李渤)<sup>75</sup>의 석종산(石鐘山)이 이와 같았을 것이다. 천지가 처음 개벽할 적에 대개 이 흑산이 바람과 물에 씻긴 바 되어 살이 떨어지고 뼈만 남아 그 형상이 둥그렇게 말려 돌아가 마치 나사가 도는 것 같았으므로 이 같은 이름을 얻은 것이다. 어지러운 바위 너머로는 언덕의 형세가 감싸 안았다.

十九日, 陪仲父, 游螺螄洞 方言小螺窟, 徐兢使高麗錄曰: “黑山初望極高峻, 山勢重複, 前一小峯, 中空如洞. 兩間有溪, 可以藏舟.” 卽螺螄洞之謂也. 此洞爲沙村之捍門, 石竇呀然, 勢如虹蜺, 高可四五丈. 始入如甕城, 旣入陰森黝黑, 寒氣逼骨, 行十餘武, 石又呀開, 洞天昭朗, 日月湧現. 出頭俯瞰, 亂石磊砢, 怒濤衝激, 函胡噌吰, 風霆擊撞. 意者李渤之石鐘山, 如是也.

74) 나사동(螺螄洞): 사리 마을 남쪽 선창 끝자락에 있는 굴이다.

75) 이발(李渤): 이발(?-831)은 당나라 귀종(歸宗) 지상(智常)의 속가제자(俗家弟子)로 자는 담지(澹之)이다. 한유의 권유로 환속하였다. 憲宗 元和 연간에 江州刺史를 지냈는데, 그의 글 가운데 「번석종산기(辨石鐘山記)」가 있다. 소동파도 「석종산기(石鐘山記)」를 남겼는데 글 속에서 이발의 석종산을 언급했다.

鴻荒之初, 蓋是土山, 爲風水所盪, 膚落骨立, 其形穹隆回纏, 如螺螄轉. 故得此名也. 亂石之外, 岸勢回抱.

또 작은 섬 두 개가 앞쪽에 있으니 이름하야 꽃섬(花苦)<sup>76)</sup>이라 한다. 바람의 힘을 조금 막아주어, 서궁이 배를 감출 수 있다고 말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꽃섬에 들어가는 포구 여자들은 모두 뗏목을 탄다. 골짜기에 똑바로 앉아있노라면 이따금 한 여인네가 머리를 풀고 젓가슴을 드러낸 채 바다에 떠서 가곤 하였다. 괴이하게 여겨 물어보니, “이는 이른바 교인(蛟人, 인어)입니다.”라고 하였다. 하지만 피부가 검어서 예쁘게 보이지는 않았다. 또한 종류의 물에 사는 생물이 있는데 대합과 비슷했지만 대합은 아니었다. 온몸에 가시털이 고슴도치처럼 돌아 있다. 중부가 이를 이름하야 위합(蝟蛤)<sup>77)</sup>이라 했다. 『본초강목(本草綱目)』을 살펴보니 합 중에 털이 있는 것을 함진(蟻蝨)이라 한다고 했다. 담채(淡菜), 홍합 또한 털이 있는데 가시털이 있어야만 위합일 뿐이다. 가시에는 독이 있어서 찢린 사람은 잘 낫지 않는다.

又有二小島在前, 名曰花苦. 小遮風力, 徐兢所謂可以藏舟者, 以是也. 浦女入花苦者, 皆乘浮槎, 正坐洞天, 時有一婦人, 散髮露乳, 浮海而去. 怪而問之, 曰: “此所謂蛟人也.” 肌膚黧黑, 不見美豔. 又有一種水物, 似蛤非蛤. 遍體生刺毛如蝟, 仲父名之曰蝟蛤. 案本草, 蛤有毛者蟻蝨. 淡菜亦有毛, 其有刺毛者, 蝟蛤而已. 刺又有毒, 觸之者, 難痊.

## 2월 25일

여러 날 경전에 대한 가르침을 들었다. 시경의 여러 편 시와 논어의 여

76) 꽃섬(花苦): 현재 칠형제 섬이라고 부르는 무인도 중 한 곳이다. 솔섬, 꽃섬, 귀섬, 바당섬 등으로 부른다.

77) 위합(蝟蛤): 보라 성계를 쪼개서 성계알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흔히 손에 가시가 박힌다.



러 조목들은 모두 아버님께서 설명하시던 것과 천 리 떨어진 곳임에도 꼭 같았다.

二十五日, 連日承聞經說, 風雅諸詩, 及論語諸條, 皆與家君所說, 千里符合.

### 3월 1일

신유일. 오늘은 중부의 생신일이다. 소사미(小沙尾)<sup>78)</sup>의 냇가 바위 위에 다 슬과 안주와 꽃지짐을 마련했다. 이곳은 원래 습지로 평평한 곳인데 바위 언덕이 감싸 안아 바다 빛이 보이지 않는지라 아름답고 특 트여서 산림의 운치가 있었다. 냇물은 맑아서 항구 같지 않았다. 예전에 절집이 있었는데<sup>79)</sup> 무너진 지 그다지 오래되지 않았으므로 중부께서 옮겨 와 사실 뜻이 있으셨다.

보촌의 소교(小校) 이행묵(李行默)<sup>80)</sup>의 집은 중부께서 예전에 살던 곳이다. 사람됨이 넉넉해서 온 섬의 어른 노릇을 했다. 굳이 나더러 자기 집에 옮겨 가자고 하였다. 집은 정결하고 넓어서 서울과 다름이 없었다. 먹을 것을 잔뜩 마련하여 예모를 다 하였다. 이날은 보촌에서 잤다. 보촌에는 행관(行官)이 있는데, 초가집 몇 칸뿐이었다. 촌락은 제법 조밀하였다. 조암(鰲巖)<sup>81)</sup>의 아래로는 맑은 못이 임해 있어 노닐며 감상할 만하였다.

78) 소사미(小沙尾): 소사미는 현재 흑산면 소사리로 잔모래미라 부른다. 마을에서는 바다가 보이지 않는다. 마을을 끼고 소사천이 흐르는데, 시내 위쪽에 지금은 군부대가 자리잡고 있다.

79) 절집이 있었는데: 「유대흥기」를 보면 마을 상단 계곡에 해은사(海隱寺)라는 절이 있었다고 나온다. 현재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자리다.

80) 이행묵(李行默, 1765-1850): 『경주이씨 익재공파 만향계열보(萬香系列譜)』에 따르면 이행묵은 자가 성시(聖詩)이고, 묘소는 흑산면 천촌리 후록에 있다고 나온다. 그는 경주 이씨 팔벌의 후손으로 이춘식(李春植, 1710-1798)의 손자다. 이춘식은 김약행이 쓴 「유대흥기」에 대장(代將)으로 나오는 인물이다.

81) 조암(鰲巖): 조암은 현재 흑산면 진리 바닷가에 있는 신안철새전시관 뒤편으로 만입되어 돌아 들어간 연못가 바위를 가리킨다. 조수에 따라 물이 드나든다. 현지에서는

三月初一日，辛酉，卽仲父生朝也。爲辦醪煮花于小沙尾溪石之上，此地原隰平行，碕岸回抱，不見海色。窈窕舒敞，有山林之趣。溪水清澈，不似漢港，舊有僧院，其毀未久。仲父有徙居之意。堡村小校李行默，仲父之舊所館也。爲人寬厚，曾於一島，苦要余轉至其家，房屋精敞，不異京城，盛具肴膳，以盡禮貌，是日宿堡村。有堡將行館，艸屋數間而已。村落頗密。有鯨巖下臨澄潭，可以游賞。

### 3월 2일

사촌으로 돌아왔다.

初二日，還沙村。

### 3월 14일

한기에 썩어 병을 얻었다가 닷새 만에 나왔다. 인삼 한 뿌리를 씹어 먹었다.

十四日，傷寒得疾，五日而痊，咀人蔘一根。

### 3월 20일

중부를 모시고 심촌(深村)<sup>82</sup>에서 잤다. 방언으로는 기품이(其品伊)라 한다. 장차 돌아오려 할 때 웬 배가 홍어를 가득 싣고 있는데 장차 도씨포로 간다고 했다.

二十日，陪仲父宿深村。方言其品伊。爲將還發也。有船滿載鯪魚，將往桃氏浦。

---

승어 바위로 부른다.

82) 심촌(深村): 심촌은 현재 흑산면 심리이다. 현지 방언으로는 '지푸미'라고 한다.

### 3월 21일

맑음. 동틀 무렵에 올면서 중부와 작별하고 배에 올랐다. 산 북쪽을 안고 돌아 몇 리를 가서 바다가 열리는 곳에 이르러 바람을 기다렸다. 정오에야 편풍을 얻어 배를 놓았다.<sup>83)</sup> 처음에는 작루(鵠漚) 루(漚)는 평성이다. 방언에 큰 물결을 루라 하는데 흰 파도가 까치 떼처럼 일어나는 것을 작루라 한다. 가 일어나 더니 점차 곡루(谷漚) 큰 물결의 기세가 산골짜기 같은 것을 곡루라 한다. 가 되었다. 다만 목화(木華)의 「해부(海賦)」<sup>84)</sup>를 읊조렸다. 그 시에 이르기를 “선돌아서 굴이 되고 솟구치면 도깨비라. 해동(海童)이 길에서 맞이하고 마함(馬銜)은 길가에 섰네.<sup>85)</sup> 하늘 바퀴 빙빙 돌아 격렬하게 구르는 듯. 지축은 내뿔혀서 다투어 돌아가네.”라고 한 것이 모두 훌륭하게 형용한 것이었다. 『남사(南史)』에서는 장융(張融)의 부가 목화의 「해부(海賦)」보다 낫다고 하였는데, 거기서는 “여울이 돌아 흐르니 해와 달도 놀라는 듯, 물결이 일렁이자 은하수가 없어질 듯”이라 하였으니 또한 진실로 기이한 말이었다. 배는 빠르기가 나는 듯 하여 멀미가 나서 병이 날 지경이었다. 뜰 아래에서 설핏 잠들었다가 일어나니 이미 관청도(觀靑島)에 정박해있었다. 마을에서 잤다.

廿一日，晴。黎明泣辭 登船抱山，北轉行數十里。至開洋處候風，午正得便風，放船初起鵠漚 漚平聲，方言大波曰漚，白波如鵠起曰漚。漸成谷漚 大波勢如山谷，曰谷漚。但誦木華之賦。其云，“盤盪成窟，漚漚爲魅，海童邀路，馬銜當蹊，天輪膠戾而激轉，地軸挺拔而爭迴”者，皆善形容也。南史稱張融之

83) 정오에야... 배를 놓았다: 심리에서 출발해 장도 앞을 지나 호쟁이 부근에서 바람을 기다린 듯하다.

84) 목화(木華)의 「해부(海賦)」: 목화는 자가 현허(玄虛)로, 위나라 혜제(惠帝) 때의 문인이다. 그가 지은 「해부(海賦)」가 『문선(文選)』에 실려 있다.

85) 해동(海童)이... 마함(馬銜)은 길가에 섰네.: 해동(海童)과 마함(馬銜)은 모두 바다 신의 이름이다. 『문선(文選)』의 주석에 해동은 해신의 동자이고, 마함은 말의 머리 모양으로 빨 하나에 용의 형상을 하고 있다고 했다.

賦, 勝於木賦, “湍轉則日月似驚, 浪動則星河如覆。” 誠亦奇語也. 舟疾如飛, 眩運成疾. 薄睡篷底而起, 已泊觀青島矣. 宿村.

### 3월 22일

맑다가 저녁에 흐리다. 첫답이 올 때 닻을 풀어 간신히 교거해(攪車海)에 이르러서야 북풍을 만났다. 웅섬(舊苦)을 거쳐 방언으로는 독섬(獨苦)이라 한다. 밤중에 목포보(木浦堡) 앞에 정박하였다. 웅섬은 죽진(竹津)의 북쪽에 있는데 뱃사람들은 이를 일러 구보(舊步)라 한다. 방언에 보를 걸음(乞音)이라 한다.

廿二日, 晴, 夕陰. 鷄鳴解纜, 纔到攪車海, 遭北風. 由舊苦, 方言曰獨苦. 夜泊木浦堡前. 舊苦在竹津之北, 舟人謂之舊步. 方言步曰乞音.

### 3월 23일

아침에 비가 오다가 늦게야 갓다. 정오에 닻을 풀어 편풍을 얻어서 저물녘에 도씨포(桃氏浦)에 정박하였다. 나씨(羅氏)의 집에서 잤다.

廿三日, 朝雨晚晴. 午正解纜, 得便風. 日曛抵泊桃氏浦, 宿羅氏家.

### 3월 24일

맑음. 정오에 황령점(黃嶺店)에서 쉬고 날이 저문 뒤에야 다산으로 돌아왔다.

廿四日, 晴. 午憇黃嶺店. 昏後反面于茶山.

## 2. 정학유 흑산도 기행시

현산으로 가려고 아침 일찍 도씨포를 출발했다가 바람에 묶여 물 위에서  
자다. 기사년(1809)

將往茲山，早發桃氏浦，滯風水宿。己巳

어부의 조그만 고깃배(瓜皮) <sup>86</sup> 로는	魚蠻小瓜皮
푸른 바다 건너기 충분치 않네.	未足陵滄海
마음 급해 몸마저 가벼워지니	意急覺身輕
고기밥이 된다 한들 후회 없으리.	魚腹且無悔
바다의 장사치 뜻 내 살펴보니	余觀海賈志
요행으로 춥고 주림 구하는 거라.	微幸救凍餒
어이해 골육이 함께 지낼까?	豈有聚骨肉
재물을 피함조차 얻지 못하네.	不及謀財賄
배에 타니 더더욱 시원스러워	入舟更浩蕩
하늘 모습 먼 안개에 이어졌구나.	天容連杳靄
긴 돛대 손으로 직접 매는데	長綯手自維
묶은 닻줄 남이 푸는 소리 들리네.	宿纜聽人解
뱃머리를 돌려서 포구 나서자	回艙出汊港
마을 풍경 바뀌니 서글프도다.	悵然村色改
언덕 버들 황금빛 처음 깃들고	岸柳黃初轉
초록빛 물가 짙은 켈 만 하여라.	汀芽綠堪採
진흙 모래 여기저기 구멍 늘어서	泥沙錯衆穴
무리지어 다니는 게가 보이네.	羣行見鱗蟹
여울물 썰물을 뒤따라가니	湍流隨落潮
맑은 바람 시원하여 기분이 좋다.	清颺欣一酒

86) 고깃배(瓜皮): 과피(瓜皮)는 작은 배를 가리키는 표현이다. 참외껍질을 깎아둔 것처럼 길쭉한 배를 말한다.

홀연히 바람 형세 거칠어져서	欸然風力麤
파도 소리 마음을 놀래키누나.	浪濤吁可駭
비늘구름 거짓으로 다투더니만	崩雲鬪詭譎
가랑비에 빛나는 해 흠어지누나.	層雨迸璨瓘
뱃사공 닷 내리라 재촉을 하니	船工催下碇
그제서야 배 뒤집힘(臭載) <sup>87)</sup> 막을 만하다.	頓足防臭載
아직 앞은 물 <sup>88)</sup> 인데도 이와 같으니	杯坳已如此
앞길은 하물며 만 배임에랴.	前程况萬倍
아깝다 봉새 날개 잡지 못하니	鵬翮嗟未搏
매미 날개 마침내 어이 기대리.	蝸翼竟何待
중부괘는 물 건너기 이롭다 하니 <sup>89)</sup>	中孚必利涉
가만히 조물주께 빌어보노라.	冥心祝眞宰

목포보  
木浦堡

산에 기댄 옛 보루 작기도 한데	古堡依山小
수십 채의 인가는 쓸쓸도 하다.	蕭條數十家

87) 배 뒤집힘(臭載): 취재(臭載)는 배에 실은 짐이 상하여 냄새가 나거나 못쓰게 됨을 말한다. 여기서는 짐을 실은 배가 뒤집혀 가라앉는다는 의미이다.

88) 얇은 물: 원문의 요배(坳杯)는 움푹 패인 마루에 담긴 한 잔의 물이라는 뜻이다. 『장자(莊子)』 「소요유(逍遙遊)」의 “물이 쌓인 것이 두텁지 않으면 큰 배를 띄우기에 역부족이다. 한 잔의 물을 움푹 패인 마루 위에 부어 놓으면, 지푸라기야 배처럼 뜨겠지만 잔을 놓으면 달라붙을 것이다. 이는 물이 얇고 배는 크기 때문이다.(且夫水之積也不厚 則其負大舟也無力 覆杯水於坳堂之上 則芥爲之舟 置杯焉則膠 水淺而舟大也)”라는 말에서 나왔다.

89) 중부괘(中孚卦): 중부괘는 『주역』 육십사괘(六十四卦)의 하나로, 손괘(巽卦)와 태괘(兌卦)를 겹친 것이다. 못 위에 바람이 있음을 상징한다. 이 괘의 설명에 ‘주허(舟虛)와 리섭(利涉)’의 표현이 있다. 여기서는 배가 적당한 바람을 얻어 무사히 잘 건너기를 축원하는 뜻을 담았다.

소금 굽는 연기는 나무 에워 고요하고	鹽煙籠樹靜
고깃배 뱃에 빗겨 묶이어 있네.	漁艫閣泥斜
무너진 성채엔 햇보리 나고	廢寨生新麥
붉은 문에 저물녘 꽃 어리었구나.	朱扉隱暮花
이제껏 이충무공 도움 덕분에	由來李公力
천 년토록 전쟁에도 평안했다네.	千載靖干戈

저물녘 고하도(高霞島)에 정박하여 이충무공의 비문을 읽다  
 晚泊高霞島讀李忠武碑

지는 해에 배를 매어 머무는 곳은	落日維舟處
해안 머리 황량한 비석 앞일세.	荒碑海岸頭
새 부들 비 맞아 곱기도 하고	新蒲經雨艷
교목엔 바람 소리 근심겹구나.	喬木響風愁
오나라 선비는 주유를 슬퍼하고	吳士悲公瑾
파축 땅 사람은 제갈량을 그린다네.	巴人憶武侯
막대 짚고 비석 글자 읽어보다가	扶藜讀小篆
돌아보니 생각만 아득하구나.	回首意悠悠

쾌재행. 다섯 고래에게 주다  
 快哉行贈五鯨

통쾌하고 통쾌하다 이다지도 통쾌한가	快哉快哉重快哉
다섯 고래 일시에 바다에 떠서 오네.	五鯨一時浮海來
바다 물결 솟구치고 온갖 괴물 달아나니	海波沸騰百怪遁
한 번 울자 천지가 갈라져 열리누나.	一吼天地爲劈開
옥기둥 뿜어내자 하늘까지 솟구치고	噴出玉柱擎碧落
무지개다리 굽혀 짓자 만 길 하늘 돌아오네.	屈作虹橋萬丈天半回

좁은 골짜기 우레 소리 허공엔 벽력 치고	窄谷雷聲空霹靂
궁벽한 산 폭포가 절로 소란스러운 듯.	窮山瀑布自喧騰
등등 북이 섞여 울자 잔에 따른 물 마르니	布鼓交鳴勺水盪
부끄럽다 그때에 기이함에 놀란 것이.	愧煞當年驚譎環
통쾌하다 하늘 연못 만 리에 물 가득하니	快哉天池萬里水
인간 세상 쾌남자가 여기에 배를 놓네.	縱此人間快男子
지느러미 헤엄침에 거리낄 것이 없고	運鰭掉鬣無妨礙
기운 떨쳐 소리 내도 그 누가 금지하랴.	逞氣放聲誰禁止
벗들끼리 교유하니 덕과 힘이 같아져서	朋類交遊德力同
쓸쓸히 지기(知己) 적음 근심하지 않는도다.	不患蕭條少知己
갈 길이 드넓어도 온갖 법도 행하니	徑塗脩闊萬軌行
어깨 밀쳐 앞 다투는 세속을 비웃는다.	側肩爭門笑朝市
예전에 다산에서 산 샘물을 뚫을 적에	憶昨茶山鑿山穴
돌을 포개 못 만들어 무너짐을 막았었네.	疊石爲池防潰缺
피라미 한 무리가 가늘기 침 같은데	魚苗一隊細如針
발랄하게 뛰놀며 어지러이 기뻐했지.	潑刺跳騰紛自悅
창포 잎과 연뿌리에 숨을 집을 만들고,	菖葉藕根作廬蔽
진창에서 빼금대며 주름 갈증 푸는구나.	吮沫淤泥解飢渴
큰 고래 잡아다가 이 가운데 놓아두면	若把長鯨置此中
옹색하여 발광하며 간과 폐가 찢어지리.	壅塞發狂肝肺裂
내 인생 귀퉁이서 괴로움과 만나니	我生苦遭小方隅
언제나 서글픔이 이 내 몸에 많았다네.	惻惻常多七尺軀
가고 옴이 참으로 밭 묶인 참새 같고	去來眞同縛足雀
움츠림 언제나 굴레 묶인 망아질세.	局促長如轅下駒
호방한 성품 술 즐겨도 술 만날 일이 없어	性豪業嗜不逢酒
한 봄 내내 마신 것이 고작 한 병 술이로다.	一春痛飲纔一壺
통쾌하다 너 고래야 배 가득 물마시며	快哉汝鯨飲水常滿腹
설산 같은 큰 이빨로 상어 놓어 먹는구나.	雪山巨齒啗鯊鱸



어이 내게 한 잔 술과 고기 한 점 나눠주어	何不分我一杯又一盞
내 낯빛 잠시나마 기쁘게 안 해주나.	使我顏色得暫愴

현산잡시  
茲山雜詩

1

마을은 쓸쓸하게 돌모루에 달려있고	縣里蕭條石角懸
다만 이제 깨진 기와 봄밭에서 나온다네.	祇今破瓦入春田
누 장차 한 권의 서공의 책 가져다가	誰將一卷徐兢記
나사동에 남겨두어 전해지게 할까나.	留與螺螄洞裏傳

2

광둥(廣東) 배가 암초에 이제 막 부서져서	暗焦新碎廣東船
감초가 포구 앞에 온통 가득 떠다닌다.	甘草萍浮滿浦前
슬프다 주머니 속 한 권의 관화책은	懷切囊中官話冊
남쪽 말씨로 괴롭게 북경 말을 배움일세. <sup>90)</sup>	南音辛苦學幽燕

3

능파선자(凌波仙子) <sup>91)</sup> 옛 이름은 교인이라 부르는데	凌波仙子舊名蛟
주궁(珠宮)에서 밤마다 비단 짠다 말들 하네. <sup>92)</sup>	攄道珠宮夜織綃
붉은 여인 이제껏 한 치 옷감조차 없어	紅女由來無寸帛

90) 남쪽 말씨로 괴롭게 북경 말을 배움일세. : 「부해기」 2월 16일자에 표류민의 옷에서 꺼낸 관화책 이야기가 나온다.

91) 능파선자(凌波仙子): 능파선자는 물 위를 넘실넘실 걸어간다는 수신(水神)이다.

92) 주궁(珠宮)에서 밤마다 비단 짠다 말들 하네. : 「부해기」 2월 19일자에 사미촌 바닷가에서 해녀를 본 이야기가 나온다. 교인(蛟人)은 고대신화 속의 인어로, 물속에서 숨 없이 베를 짜고 그 눈물은 진주가 된다고 한다.

봄바람 아직 찬데 벌거벗고 있구나.

春風吹冷赤條條

4

금문(金門)의 붉은 개<sup>93)</sup>는 옛날의 불거린데

金門赤犬舊流觀

오늘에 현산에서 내 눈으로 보았다네.

今日茲山正眼看

어이해 고달프게 본래 성품 바꾸고서

豈爲纍纍易天賦

단풍 숲서 때로 짙은 몹시도 이상하다.

楓林羣吠太無端

5

묵석령 고개 위엔 연갱(硯坑)이 세 줄인데

墨石嶺頭三硯坑

수현갱과 미자갱이 이름이 나란하다.

水舷坑子可齊名

- 홍경백의 『흙주연보』에 말하기를 “수현갱과 미자갱은 모두 나문산에 있다<sup>94)</sup>”고 했다. (洪景伯歙州硯譜云: “水舷坑子坑在羅紋山.”)

생각하니 비서성의 누각 위 서고에선

記得秘書樓上庫

오순과 계각<sup>95)</sup>을 최고로 여긴다지.

烏肫雞脚擅光榮

- 옥당의 고사에 대제학이 쓰는 큰 벼루를 마치 의발처럼 전하면서 운각(芸閣:교서관)에 보관해둔다고 한다. 조계선(曹繼善)은 『흙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 “돌의 병이 열 가지가 있는데 오순과 계각 같은 것들이다.” (玉堂故事, 大提學有巨硯, 相傳如衣鉢, 藏于芸閣. 曹繼善歙硯說云: “石病有十, 如烏肫, 雞脚等.”)

93) 금문(金門)의 붉은 개: 『산해경』에 금문의 산에 산다는 붉은 개 이야기가 보인다.

94) 수현갱과 미자갱은 모두 나문산에 있다. : 수현갱(水舷坑)과 미자갱(眉子坑)은 안휘성(安徽省) 흙현(歙縣)의 용미산(龍尾山)과 나문산(羅紋山) 일대에서 나는 흙주연의 산지이다. 이밖에 흙주연이 나는 갯구로 십구갱(葉九坑), 계두갱(鷄頭坑), 금성갱(金星坑), 긴족갱(緊足坑), 외장미문갱(外庄眉紋坑), 니산라문갱(裡山羅紋坑), 나문갱(羅紋坑), 여갱(驢坑) 등이 더 있다.

95) 조계선(曹繼善)은 『흙연설』: 조계선의 『흙연설(歙硯說)』에 보면, 오순(烏肫)은 돌 표면에 나뭇잎 무늬가 있는 것을 말하고, 계각(雞脚)은 닭 발자국처럼 생긴 암갈색의 무늬가 있는 돌을 가리킨다고 했다.



마음 속 근심을 점차 깨닫네.  
 보이는 것 익숙잖음 탄식하노니  
 움츠려 마음대로 하지 못했지.  
 가만히 봄 지나감 애석해하니  
 근심을 뿌리 뽑기 정말 어렵네.  
 바다 하늘 하룻밤 바람 불더니  
 구름 안개 말끔히 쓸어갔구나.  
 그윽한 회포는 가을매 같아  
 솟구치는 기세를 막을 수 없네.  
 안주는 이곳의 풍속 따르고  
 지팡이 신발 주섬주섬 주워들었네.  
 산 오르니 마치도 자벌레 같고  
 한참 가서 꼭대기에 다다랐구나.  
 긴 이끼 바위를 온통 뒤덮고  
 고사리손 묵은 풀 뚫고 나왔네.  
 여기저기 피어난 진달래꽃은  
 도끼 맞은 그루터기 겨우 피었네.  
 험겁게 산허리 지나가려니  
 매운바람 옷깃에 휘몰아친다.  
 모자 숙여 작은 나무 헤쳐가면서  
 몸을 세워 칩닝쿨 더위잡는다.  
 다 오르니 시야가 활짝 열려서  
 준마가 고삐에서 벗어난 듯해.  
 사방은 구름안개 자옥도 하고  
 광대한 저편 끝 넓기도 하다.  
 저 멀리 태사도와 가가도 섬은  
 하늘 끝에 검은 점이 떠서 있는 듯.  
 조금 더 가까이에 있는 홍의섬

漸覺中心怛  
 觸目嗟非慣  
 踟躕未放達  
 暗惜春事催  
 愁根苦難拔  
 海天一夜風  
 快掃雲翳霽  
 幽懷似秋隼  
 歟翥勢莫遏  
 肴菽循土俗  
 筇屨紛拾掇  
 攀登似蜈蝮  
 互回抵巇嶮  
 苔髮冒曾巖  
 蕨拳穿宿芡  
 些些謝豹花  
 僅樵斤斧槩  
 艱險度山腰  
 猛颺颺衣裊  
 側帽披扶蘇  
 攬身捫藤葛  
 既登浩縱目  
 驥駢紛纓脫  
 四顧雲煙盪  
 納納端倪闊  
 太師與可佳  
 黑子芙天末  
 稍近紅衣帖

오두마니 흙 한 줌 쌓아둔 듯해.	兀然土一撮
- 『대명일통지』에는 도를 섬이라 했다. (大明一統志, 以島爲岫)	
바람 피해 층층 절벽 기대었자니	避風依疊壁
골짜기가 마치 문을 밀치는 듯해.	嵌岫如排闥
바위 사이 시냇물 검게 휘돌아	紺滙石間泉
손에 떠서 목마름 해결했다네.	手掬救煩渴
그제야 병 속의 술을 따르며	始瀉瓶中酒
풀밭에 광주리를 펼쳐놓았지.	藉艸羅筐盞
물고기와 조개만 흔하겠는가	豈惟魚蛤賤
산나물 굽어보면 널러있다네.	山蔬俯可捋
냉이에 민들레를 곁들였으니	薺萑伴地丁
애써서 소 염통 가를 것 없네.	非必牛心割
내 평생 우물 속 개구리 신세	生平井裡蠅
바다를 건너볼 기회 없었네.	何由踰堤閼
계림 땅은 바다로 둘러싸였고	鷄林環海中
험준한 말갈과 접해 있다네.	崎嶇接靺鞨
산과 계곡 험하게 막혀있으니	山谿亦險阻
어이해 백 리의 별판 있으리.	那得百里谿
옛 사람 뜻과 기운 넓게 펼쳐서	古人恢志氣
우주를 모두 다 포괄했다네.	宇宙窮包括
공자께선 동이 땅에 살려했으니 <sup>100)</sup>	孔聖思居夷
탁한 풍속 다스리기 힘들 아셨지.	滄俗知難撥
일찍이 하후씨가 구구하게도	常怪夏后制
거친 땅 구획지음 괴히 여겼네. <sup>101)</sup>	區區界荒蔡

100) 공자께선 동이 땅에 살려했으니: 『논어』 「자한(子罕)」편에서 공자가 구이의 땅에 살고 싶다는 말을 한 대목이 있다. “子欲居九夷. 或曰: 「陋, 如之何!」 子曰: 「君子居之, 何陋之有?」”

101) 일찍이 하후씨가…… 구획지음 괴히 여겼네.: 하후씨는 우(禹)임금을 가리킨다. 우

예악은 여태도 가시덤불 속	禮樂尙榛莽
좋은 말은 번번이 꺾이고 마네.	法語屢撓奪
매인 몸 놓인 땅을 못 벗어나니	匏繫限封疆
선기(璿璣)만 혼자서 빙빙 도누나.	璿璣空自斡
혼잣말 대답하는 사람은 없고	獨語無人酬
까마귀만 시끄럽게 우짚는다네.	但有烏鳥聒
지는 해에 지팡이 끌고 오는데	斜日曳杖歸
빈 터에 한 줄기 연기가 인다.	墟煙起一抹

3. 이학규의 「정학포의 현산기행시에 화답하여(和丁學圃茲山紀行詩)」  
『낙하행집(洛下生集)』 7책

■■■■■■■■	■■■■■■■■
■■■■■■■■■102)	■■■■■■■■
■■■■■ 마카오라 하는데	■■■■■哥輿
표류선이 일찍이 오문(魯門) 물가 갔었다네.	漂船曾到魯門涯

돌병풍 그 너머로 하늘 바람 매서워서	石屏風外峭天颺
진달래 꽃 필 적에 실같은 회 차가워라.	謝豹花時冷鱗絲
내일 아침 비올 조짐 모름지기 알겠구나	須信來朝雨信在
한 줄기 한라산이 눈썹처럼 드러나니.	漢挈一抹現蛾眉

홍의(紅衣)의 비루함이 대사는 부끄러워	紅衣之陋大師恥
만촉을 이뤘어도 문물은 성글도다.	蠻觸生成文物疎

임금이 기주(冀州), 연주(沅州), 청주(靑州), 서주(徐州), 양주(梁州), 형주(荊州), 예주(豫州), 양주(揚州), 옹주(雍州) 등 구주(九州)를 개척하여 하나라를 세운 일을 말한다.  
102) 해당 원문이 결락되고 없다.

장기는 돼지치기 오락거리 아니건만  
아전이 할 줄 아니 어이 그를 상관하리.

象馬元非牧豬戲  
夷丞解事豈關渠

참새 응당 태풍에 내몰려서 날아왔다  
흑산으로 떨어져서 영영 가지 못했구나.  
해마다 삼월 삼일 사미포 길 위에는  
제비 진흙 수도 없이 물가 바위 쌓여있네.

雀兒應逐颶風飛  
流落茲山永不歸  
春社季季沙尾路  
鶯泥無數疊巖磯

푸른 기장 붉은 벼는 옮겨 오기 힘이 들고  
개펄과 잔내 산엔 농작물이 많지 않지.  
곳곳에 훈풍 부는 사월의 끝자락엔  
보리 수확 그 풍미가 인간과 비슷해라.

青梁紅稻輸間關  
耕種無多潟鹵山  
處處薰風四月尾  
麥秋風味似人間

소를 말에 비유하니 말은 차이 없건만  
아이들 괴이쩍음 많을까 걱정일세.  
새벽에 나무 하러 산 꼭대기 올라가서  
구름 다발 너머로 개짖는 소리 누워 듣네.

以牛喻馬語無差  
惟恐羣蒙所怪多  
想得晨樵到山頂  
臥聞犬吠出雲蘿

광동 땅의 선박이 바람에 표류한 날  
흰 나무판 푸른 대가 물결 가득 부서졌지.  
주머니 속 『관화(官話)』 책이 그대로 남았건만  
이제껏 바위 언덕에 남아있음 안타깝네.

廣東舶子風漂日  
白板青筠碎滿波  
留與囊中官話卷  
至今流恨在巖阿

흑산의 검은 돌이 수정처럼 빛 나는데  
좋은 제품 찾아보니 옥대(玉帶)가 나는구나.  
헛되이 나사굴의 단단한 돌이 있어  
서궁의 기록 속에 이름 가장 알려졌지.

黑山黑石謾光晶  
佳品須尋玉帶生  
空有螺螄老頑石  
徐統記裏取聞名

홍어 실로 꽃뱀의 가시와 비슷하고 성계를 멸쩍하니 담채모라 속이누나. 알몸의 교녀(鮫女)에게 말 부쳐 보내노라 오랑캐 채찍질을 만나지는 말려무나.	鯢魚絕似花蛇刺 蝟蛤平歎淡菜毛 寄語赤身鮫女道 虜蠻鞭下莫相遭
집 동산의 풍미는 어만(巖蠻)에 속하는데 함소(含消) <sup>103</sup> 만 겨우 있어 우스워 죽겠구나. 치자와 만다화(曼陀花)는 괴롭게 기댈 없고 은 하늘 질푸르고 바다는 아득하다.	家園風味屬巖蠻 纔有含消齒絕酸 蒼蘆曼陀苦無賴 一天濃綠海漫漫
출렁출렁 부른 배를 상자 삼은 <sup>104</sup> 변부지는 여태껏 시를 읊는 담변의 영웅일세. 부끄럽다 분산 땅 응화절 맞이하여 역서 가운데서 월령(月令) 널리 구하누나.	便便腹筥邊夫子 尙有風詩談辯雄 慚愧盆山鷹化節 徧求月令曆書中
이 생애 참으로 돌아가지 못하리니 돌아올 때 얻는대도 늙은 뒤야 어이하리. 내 이미 새 봄에도 기댈 데 더욱 없어 풍진(風塵)과 천석(泉石)이 양쪽 다 어긋났네.	此生未必眞歸去 縱得歸時奈老何 我已新春益無賴 風塵泉石兩蹉跎

103) 함소(含消): 함소는 배(梨)의 별칭이다.

104) 배를 상자 삼은: 원문은 복사(腹筥)이다. 후한 때 학자 변소(邊韶)가 종일 누워 잠만 자자 제자가 우리 선생님은 배가 출렁출렁한데 독서는 안 하시고 잠만 주무신다고 비웃자, 변소가 “배가 출렁출렁한 것은 오경(五經)이 담겨 그렇고, 자는 것은 경전을 생각다가 꿈에 주공을 만나려는 것”이라고 대답한데서 나온 말. 『후한서』 「변소열전」에 나온다.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 이학규, 『낙하생집』, 친진암 성지소장.  
정학유, 『운포유고』, 김영호 소장, 『유고』 10책 중 7, 8, 9책.  
정약용, 『여유당집』, 연세대 도서관 소장본. 필사본.

### 2. 논문 및 단행본

- 김영원(2012), 「연세대본 여유당집에 대한 서지적 검토」, 『남명학연구』 제36집,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281~300면.  
김영호(1985), 「여유당전서의 텍스트 검토」, 『정다산연구의 현황』, 민음사, 23~41면.  
신안문화원 편(2003), 『김이수 전기』, 크레핀.  
윤석호(2018), 「유배기 정약용과 정약전의 왕복 편지」, 『다산과 현대』, 강진다산학술연구회, 241~260면.  
이준곤, 「흑산도 전승설화로 본 면암 최익현과 손암 정약전의 유배생활」, 『목포해양대학교 논문집』 제11집, 목포해양대학교, 167~220면.  
정석조(1998), 『상해 자산어보』, 신안군.  
정 민(2011), 『다산의 재발견』, 휴머니스트.  
조성울(2004), 『여유당집의 문헌학적 연구』, 혜안.  
\_\_\_\_\_(2016), 『연보로 본 다산 정약용』, 지식산업사.  
최성환(2010), 「유배인 김약행의 유대흑기를 통해 본 조선후기 대흑산도」, 『한국민족문화』 제36집, 한국민족문화학회, 139~177면.  
허경진(2012), 「새로 발견된 손암 정약전의 시문집에 대하여」, 『남명학연구』 제36집,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263~280면.  
\_\_\_\_\_(2015), 『손암 정약전 시문집』, 민속원.

〈Abstract〉

Jung Hak-yu's travel essay *Buhaegi* and travel poems

Jung, Mi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troduce Jung Hak-yu's travel essay *Buhaegi* and his travel poems in 1809. Jung Yak-yong's second son Jung Hak-yu(丁學游, 1786-1855), when he was 24 years old, left Kangjin on February 3, 1809, went to Heuksan Island, and returned to Gangjin on March 24 for about 50 days. *Buhaegi* is a journal recording this travel. Since Jung Hak-yu's literary collection has not been released, the existence of this essay has not been known, and this paper first introduce it to the public.

Because of his father Jung Yak-yong's request, Jung Hak-yu visited Heuksando to greet his second-oldest father Jung Yak-jeon who was in exile on there. On the way to Heuksando, he suffered from a bad boat condition, saw the whale for the first time. He also described the sailors' custom and surrounding scenery in detail.

This essay allows us to add an important old record about Heuksando. *Buhaegi* not only gives a detailed introduction to the features of Heuksando and the routes that go back and forth, but also introduces the human geographical environment of Heuksando, the lives of the residents of the island at that time, and the names of the landscapes and special products. It also provides an important information about the exile life of Jung Yak-jeon.

In addition, Jung Hak-yu left twelve poems about the characteristic of Heuksando. Lee Hak-kyu saw Jung Hak-yu's writings, and also made 12 poems which enriched the content. At the end, the full text was translated included with the original text to be used as future research data.

---

\* Professor, Hanyang University / E-mail : jung0739@hanmail.net

Key words : *Buhaegi*, Jung Hak-yu, Jung Yak-jeon, Unpoyugo, Jung Yak-yong

본 논문은 2020년 7월 30일 투고되어 2020년 9월 6일 심사 완료하여  
2020년 9월 14일 게재를 확정하였음.